Weekly 공감

2009 05.06 No.10(통권 111호)
http://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보석

가족

4대강 물길 따라 우리 마음도 열리네

최초 공개 인플루엔자 A와 싸우는 질병관리본부 '워룸'

대덕특구, 자전거산업에 '올인'한다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난타 체험교실' 여는 송승환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1989-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09. 6. 1 ~ 2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www.asean-roksummit2009.kr | blog.naver.com/asean_korea

"아이들이 행복해야 제대로 된 나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집은, 그 학교는, 그 나라는 무언가 잘못 돼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 달러를 넘어설지라도 아이들을 방치하고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난과 부모의 이혼으로 가족해체가 가속화하면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챙겨줄 사람 하나 없이 혼자 끼니를 해결하거나 쉴 틈 없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 '나홀로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고 폭력과 탈선으로 나아가도 그 위험을 막아줄 방패는 가까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소통으로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할 부모는, 교사는, 나라는 모두 어디에 있을까?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 복지, 보육, 의료 등에 걸친 더욱 전방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1962년부터 '생애초기아동에 대한 교육(Perry Preschool Project)'을 시작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아동에게 1달러를 투자하면 17.1달러의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곧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정부는 최근 사람을 키워서 미래 한국사회의 도약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자는 의미의 '휴먼뉴딜(Human New Deal)'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휴먼뉴딜의 핵심은 역량 있는 인재를 키워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복원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휴먼뉴딜의 핵심정책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빈곤층에 대한 물적 지원에 머물렀던 아동·청소년정책을 중산층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과 건강,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는 인적 투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개개의 가족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학습과 인성 교육의 장(場)으로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좀 더 섬세하게 가미돼야 하고, 여기에 정부가 나서 함께 키워야 한다. 가족이나 학교가 온전히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공동체 사회가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



아이들은 관심과 보살핌이 있으면 올곧게 자랄 수 있다. 엄마 아빠가 힘겨운 일상에 매여 충분히 돌보지 못하더라도 함께 밥 먹고, 함께 공부하며, 함께 뛰어놀 공간과 친구와 선생님이 있다면 미래사회의 건실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중산층을 지키고 늘리는 지름길이며, 양극화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법이라고 확신한다. G

Contents

Weekly_2009.05.06_No.10(통권 111호)



20

기획특집

가족이 희망이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농부가 작물에
정성을 기울여야 하듯,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
우리의 미래 주역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할 요즘이다.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소중히
지켜가는 것 역시 미래세대에겐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는 일이다.





06



44



14

Weekly 공감

발행일 2009.5.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배포문의** 02-3704-9668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4월 27일 청와대에서는 7개 정부 기관장과 4대강 유역 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인 핵심 녹색 뉴딜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린 한 독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4대강 살리기는 서민 살리는 녹색성장 사업이다

pyo8989(표인덕)

4월 초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는 어떤 사업이 있느냐 했을 때 각국은 "한국의 4대강 살리기가 최고 잘된 계획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것이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모든 나라 정책 중에 4대강 사업을 높이 평가해 저도 놀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내 일부에서 이 사업을 정치이념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도 일부 있다"며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힘들지만 우리 한국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의 평가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총체적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극심한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서민들을 모아놓고 정부가 보유한 돈이나 빚을 내어 선심을 베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를 거쳤으며, 지금까지 성장동력으로 그 임무를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정보화만으로는 미래에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산업인 이른바 '녹색산업'이라는 신개념 신기술 신경제정책 플랜을 설계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계의 추세를 앞질러 현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을 마련했는데, 이는 앞으로 현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서민들이 어려운 이때,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안으로 인정받은 '4대강 살리기'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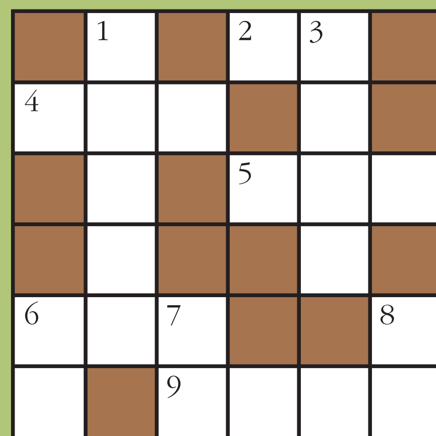


●● 요즘 자전거 열풍이 대단합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면서 건강도 다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Weekly 공감〉 8호(4월 22일자)에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을 소개하는 기사를 싣고 〈Weekly 공감〉 9호(4월 29일자)에는 10개월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선의 씨의 체험기를 실었습니다. 이 글들을 읽고 보낸 독자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녹색엔진' 자전거축전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환경을 지키는 자전거 보급이 확산되길 기대해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장려하는 캠페인이나 외국의 자전거 활용 실태를 알리는 기사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책이 정착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축전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서 희망과 행복을 향한 아름다운 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소망해봅니다." _ 박지현

"무엇보다 이선의 씨의 능동적이고 여유 있는 삶이 가장 부럽네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기사~~ 파이팅!" _ 정금우

공감 퍼즐



정답을 적어 주소 · 연락처와 함께 5월 14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몇 분을 뽑아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로

2. 뽕잎을 먹고 잠을 자고 난 뒤 실을 토해 고치를 짓는 애벌레.
4.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정부는 가장의 실직과 가정 해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과 OOO들을 돕고 있습니다."
5. 대표적인 겨울스포츠의 하나로 좁고 긴 기구를 발에 부착해서 탈 때 입는 옷.
6. 담북장이라고도 하죠. 삶은 콩을 더운 방에 띄워 반쯤 찧다가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어 만드는데, 영양이 많고 발암물질을 줄여주는 등 매우 좋은 우리 전통식품.
9. 5월은 무슨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가족에 관련된 날이 연이은 5월입니다.

세로

1. 우리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되죠. 이 표시 제도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도 곧 실시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Carbon Footprint.
3. 북극 지방 중에서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극동부 러시아에 사는 종족. 피부는 황색으로 주로 수렵과 어로에 종사하지요.
6. 주택 등을 구입, 계약하기 위해 취하는 의사 표시. 국토해양부는 장점만 모아 놓은 새로운 주택OO종합저축 통장을 5월 6일쯤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7. 남자가 결혼하는 일. "그 친구 이번 주말에 OO든다며?"
8. 자전거는 이것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삶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생각되면 OO을 밟자. 우리 아이들에게 숨 쉴 공기를 주고 싶다면 OO을 밟자." 자전거 선진국 네덜란드가 내세웠던 구호랍니다.

〈Weekly 공감〉 8호(4월 22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1 빙산 4 노래방 6 화분 7 이공계 9 탄소
세로 2 산불 3 나노 5 문화버스 7 이소연 8 계단

당첨자
강미숙(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박주천(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류지명(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장경욱(서울 관악구 신림9동)
박지현(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신종 플루 국내 상륙… 지나친 두려움은 기우(杞憂)

정부 신속 대응 "개인위생 철저" 당부

신종 인플루엔자인 인플루엔자 A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정부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개인위생에 어느 때보다 신경 써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플루엔자 A란? '돼지인플루엔자(SI)'에서 '인플루엔자 A(H1N1)'로 이름이 바뀐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WHO는 돼지인플루엔자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을 오도한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명칭을 바꿨다. 인플루엔자 A는 과학적 분류에 따른 명칭으로, A · B · C형으로 분류되는 인플루엔자 종(種) 가운데 하나다. A형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며, 'H1N1'은 A형의 아종(亞種)을 의미한다. 한편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은 5월 1일자로 우리나라 돼지에는 인플루엔자 A 병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동아DB

돼지독감, SI 등의 약칭으로 불리던 인플루엔자 A(H1N1)가 국내외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 4월 28일 첫 추정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 환자와 접촉한 같은 숙소에 사는 여성(44)도 추정환자인 것으로 5월 1일 밝혀졌다. 2차 감염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2차 감염이란 발병국가에서 직접 감염된 게 아니라 국내 환자한테서 감염된 경우를 말한다. 또 이들과는 무관한 남성(57)도 추정환자로 확인됐다. 5월 1일 오전 현재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신고한 59명 가운데 추정환자 3명, 조사검사 중(의심환자)인 사람이 18명이다. 나머지 38명은 정상으로 판정됐다.

미주지역 여행자명단 확보 전원 추적관리

이에 따라 정부 대응도 긴박해졌다. 더 이상의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열감지기 20대를 추가하고, 검역인력도 34명 늘렸다. 또 공항의 열감지카메라가 추정환자를 전혀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열감지카메라의 설정온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4월 1~30일 미주지역에서 들어온 여행자의 명단을 세관, 여행사 등을 통해 확보해 전원 추적관리하기로 했다. 국내에는 멕시코 직항이 없어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캔사스, 뉴욕, 오하이오, 텍사스주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이 대상이다. 귀국 당시 의심증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만약 있었다면 보건기관에서 정밀 역학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검역당국은 입국 승객들에게 검역질문서를 쓰게 해 확보한 인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임시콜센터가 직접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입국 이후 7일간 관련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멕시코에서 귀국하는 주재원 등 교민에 대해 별도의 검역대책을 마련했다. 귀국편 비행기에서 내

검역이 강화된 인천국제공항에서 열적외선감지카메라로 입국자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리기 전에 기내 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해 증상이 있는 환자는 입국대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별도 통로를 통해 격리수용이 가능한 시설에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일부 기업의 주재원 등 단체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연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연수원에 격리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일반 교민의 경우 기내 검역 결과 의심이 되면 가택에 격리하도록 했다. 현지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주일간 가택격리 후 경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가택격리라고 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가능하다. 하지만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자택에서 독방을 이용하도록 하고, N95 마스크 등을 착용해 기침 등의 분비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로를 차단하도록 했다. 예컨대 감염 우려자는 독방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그의 가족은 마스크를 쓴 채 독방으로 식사를 전달하는 식이다.

손 자주 씻고, 열 나면 무조건 병원 가야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치료제 '타미플루'도 더 확보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전염병대응센터장은 "국회에서 확보된 치료제 확보용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비축용이 아닌 시중 유통용 타미플루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단체와 업체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 A의 증상은 돼지의 경우 사람처럼 기침을 하거나 활동성이 떨어지다가 1주일 정도 지나면 낫는다.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람은 일반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다. 잠복기가 1~7일이며 열이 나고 기침, 콧물, 식욕부진, 무력감 등이 생긴다. 사람에 따라 구토나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인플루엔자 A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인플루엔자 A의 독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개인위생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종인플루엔자대책위원회 박승철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백신과 같은 약이다. 둘째,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신종 인플루엔자에는 백신이 없다.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개개인의 건강과 위생상태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청결 유지도 중요하다. 인플루엔자는 공기로 전염되는데 왜 손을 잘 씻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기침할 때 손으로 입을 막기도 하고 코를 만지기도 한다. 그 손으로 악수하지 않느냐. 그래서 손을 잘 씻어야 한

연합



인플루엔자 A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군인들이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다"고 말했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손을 씻으라는 건 잘못된 얘기다. 수돗물을 볼 때마다 씻어야 한다. 손을 씻는 데에는 소독약이 필요 없다. 그냥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된다. 특히 밖에서는 손으로 코와 입을 만지면 안 된다. 또 열이 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백신과 같은 약이다. 둘째,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신종 인플루엔자에는 백신이 없다.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박 위원장은 "지금은 인플루엔자 A와 전쟁 중이다. 걸렸다 싶으면 바로 포복해야 한다. 과로하지 말고 술, 담배 등 몸에 나쁜 건 다 피해야 한다"며 "인플루엔자 A는 식품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 돼지고기나 햄, 소시지 등 식품은 먹어도 안전하다. 또 이 바이러스는 섭씨 71도 이상 열을 가하면 죽는다"고 말했다.

기존의 독감예방 백신을 맞는 것은 효과가 없다. 또 타미플루의 예방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만큼 예방 차원에서 미리 먹을 필요도 없다. 미국, 멕시코 등지로의 여행을 삼가고, 기침할 때 휴지로 입 가리고 하기 등 일반적인 독감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기침을 하거나 코를 푸는 환자와는 2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옮지 않는다. 미국이나 멕시코를 여행한 후 독감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G

글 · 안혜리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A 대응법

돼지고기로는 전염 안 돼… 호흡기 노출 주의해야

Q
A

인플루엔자 A(H1N1)는 사람 간에 전염이 되나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사람 간에 전염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람 간 감염이 얼마나 쉽게 이뤄지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A 감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인플루엔자 A에 감염된 돼지에서 사람으로, 또는 감염된 사람에서 돼지로 직접 전파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돼지를 감염시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돼지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돼지우리, 가축시장 등에서 감염된 돼지와 밀접하게 접촉했을 때 발생합니다.



인플루엔자 A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증상은 일반적인 계절인플루엔자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발열, 무력감, 식욕부진,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콧물, 인후통, 구역질, 설사와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A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미국 CDC는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 상품명 타미플루)와 자나미비르(Zanamivir · 상품명 릴렌자)를 인플루엔자 A 치료 및 예방약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A 전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인플루엔자 A 증상 발생 후 7일까지 전염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면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A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채기를 할 때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삼가십시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질병관리본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비상방역체계와 연계한 인플루엔자 A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1주간 발생 국가를 방문한 해외여행자 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검역소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 관련 최신정보와 바이러스 유전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을 미국 CDC에 발송하는 등 협조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는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돼지육가공품을 섭취하는 것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는 섭씨 71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합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 02-380-2690

인플루엔자 A 대응 최전선 질병관리본부 '워룸'

"전염병 대응, 1초도 늦지 않겠습니다"

인플루엔자 A(H1N1)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상황실이다. 이곳은 각종 전염병과 싸우는 최전선, 일종의 '워룸'이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 질병관리본부 본관 2층에 마련된 위기대응상황실 중앙에는 화상회의가 가능한 대형스크린이 설치돼 있다. 국내 전염병 관계자들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그리고 외국의 전염병 담당자들과도 화상회의가 가능하다. 2007년 말 공사를 시작한 위기대응상황실이 2008년 문을 열면서 WHO와 시범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컨퍼런스콜을 통해 30명 가량이 동시에 음성 회의를 할 수 있다.

위기대응상황실 지휘를 맡고 있는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은 "인플루엔자 A와 같은 전염병을 상대할 때는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라며 "화상회의나 컨퍼런스콜이 중요한 것은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 신속히 대응해야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기대응상황실 바로 위층에는 제2위기대응상황실이 있어 전국의 환자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곳에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의심환자들을 집계하고, 이들이 기존의 사람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아닌지 구분해 최종적으로 인플루엔자 A에 감염된 환자인지 여부를 집계하게 된다. 또 출동 상황에 대비해 현장이동차량과 마스크, 개인 구호복 등이 구비돼 있으며, 별도 장소에 인플루엔자 A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비축돼 있다.

위기대응상황실은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 지하에 마련된 전략보건활동센터(SHOC · Strategic Health Operations Centre)를 본뜬 것이다. 인플루엔자 A의 확산으로 요즘 가장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SHOC는 전 세계의 전염병 상황이 집계되는 허브인 동시에 비상 상황을 지휘하는 워룸이다.

전 세계 전염병 상황 실시간 집계 · 상황 지휘

SHOC의 공식 이름은 2006년 작고한 이종욱 WHO 사무총장의 이름을 딴 'JW Lee Centre'다. 2003년 한국인 최초로 유엔기구 수장이 된 이 총장은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사스)을 겪으면서 세계적인 위기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 2004년 7월 WHO 본부에 SHOC를 만들었다고 한다. SHOC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전염병 환자 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전화와 컴퓨터를 통해 각국의 활동이 보고된다. 국내 위기대응상황실을 맡고 있는 권 팀장은 2003년 9월부터 30개월간 WHO에서 파견근무를 하며 이 총장 곁에서 SHOC 운영을 지켜봤다.

권 팀장은 "인플루엔자 A는 일반적인 계절 독감과 비교해 증상이나 중증 환자 발생 상황이 크게 심각하지는 않다"며 "위생 수준을 높이고 대처를 잘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상황실의 신속한 대응은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의 낙동강 모습. 낙동강은 홍수 방어와 물 확보를 중심으로 정비되며 가야문화권의 특성을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4대강 물길따라 우리 마음도 열리네

'4대강 보고회' 물 문제, 문화·관광, IT 등 종합계획 세워

4월 27일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윤곽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물 부족, 홍수, 수질 등 당면한 물 문제 해결대책과 함께 하천 인근 마을을 다양한 테마마을로 조성해 농가 수익을 높이고, 수변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강과 바다를 있는 그대로 두고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좁은 국토를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을, 연안을 반드시 잘 활용해야 한다."(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윤곽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4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들이 사업계획을 종합보고하는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가 열린 것.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5월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최종 수립하고 9월부터 본격 착수해 2011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미래 국가의 백년대계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과제에 대한 대비"이자 "경제를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녹색성장의 대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초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선제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했는데, 우리나라

의 4대강 살리기가 최고로 잘된 계획이라는 찬사를 보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일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정치이념적 해석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도전에도 반대가 없지 않았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까지 귀 기울여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엔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7개 정부기관장과 4대강 유역 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부처별로 보고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살펴보면 당면한 물 문제와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문화·관광·녹색산업 육성, 지역발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농촌희망 금수강村 만들기 |

하천 주변 마을의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별로 특산품과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연계한 테마를 설정해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복합산업화 사업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낙동강 유역은 뽕과 누에, 비단을 테마로 한 웰빙·패션 마을로 특화한다. 지역 특산물이 포도인 강촌(江村)은 폐기되는 우체통 1천여 개를 활용해 ‘러브레터 마을’로 디자인하고 와인산업 등을 육성해 소득을 높인다. 영산강 유역엔 지역 특산물인 배(梨)와 배(船)를 결합해 음식과 뱃놀이, 즉 먹을거리와 풍류를 결합한 테마마을을 만든다.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생태계 회복 관련 사업도 집중 지원한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한편, 저수지 개발과 산림댐 설치를 통해 수질을 개선해나간다. 저수지에는 작은 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수지와 양·배수장을 리모델링해 카페나 향토음식점, 지역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생생물 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체수 감소가 예상되는 토속어종을 키워 방류하는 사업을 10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한다.

영산강 간척지 등 대규모 농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신농업모델도 제시했다. 정보기술(IT), 생명과학(BT) 등 첨단기술과 경관농업, 식품·서비스산업 등을 종합한 첨단 신농업단지도 조성한다. 농어촌형 뉴타운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센터를 통한 영농기술과 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 녹색문화관광산업 육성 |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을 구축하고, 친환경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4대강을 문화와 환경, 인간이 공생하는 ‘문화가 있는 녹색관광 축’으로 발전시킨다. 낙동강의 가야문화권, 금강의 백제문화권, 영산강의 마한문화권, 한강의 삼국문화권 등 4대강별로 특화된 문화유적을 복원하고, 문화경관과 생활문화가 잘 보존된 ‘아름다운 강호(江湖)마을’을 지정 보호한다.

강변 지역에 명품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고 현재 금강, 소양강, 충주호 등에서 운영 중인 유람선사업을 확대해 내륙~강~해양을 연결하는 친환경 리버크루즈 상품을 개발한다. 예컨대 낙동강~을숙도~남해안, 금강~새만금~서해, 영산강~다도해 등을 잇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문학작품과 작가를 따라가는 문학가도(街道), 아름다운 강변 풍경을 감상하는 경관가도, 자연이 살아 있는 생태가도 등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가도’를 구축하고 강변의 역사, 문화, 관광 등 통합적 정보 제공을 위한 스토리 정거장을 구축하는 등 관광루트 인프라도 마련한다.

하천가에 생태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등 친수(親水)형 여가문화와 레저스포츠 활동공간을 확충한다. 강변의 폐시설과 폐교 등 유휴공간을 지역문화발전소나 아트팩토리 등 복합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의 문화 랜드마크로 만든다. 이 밖에도 4대강을 종단하는 자전거 타기 대회 ‘투르 드 코리아’ 개최 등 세계적인 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해 강변의 문화 이벤트를 확대한다.

| 물환경 테마파크 조성 |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와 이에 따른 취수장 및 수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

청와대 제공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아DB



4대강변에 1천4백11킬로미터의 자전거길과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화하기 위해 '4대강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립하고 수질자동모니터링시스템(TMS), 자동측정망, 항공감시대 등을 이용해 오염 예방과 조기 방제에 힘쓴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 환경영향을 과학적 예측 모델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4대강 주변을 기후변화 대응, 녹색에너지 창출 등 다양한 녹색성장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국민이 녹색성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당초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에서 정한 '좋은 물' 달성 목표(2015년 8퍼센트)를 2012년으로 앞당겨 초과달성(90퍼센트)한다. 좋은 물은 수질기준 2등급 이상으로,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나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도가 높게 유지되거나 최근 상승하는 유역 등 34곳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경안천, 금호강, 갑천, 미호천, 광주천 등 수질오염이 매우 높은 5개 유역은 가장 먼저 개선해나간다.

이 밖에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의 자정능력을 높이고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4대강의 근원인 실개천 5백여 곳을 수생태계가 살아 있는 깨끗한 개천으로 복원한다. 또한 4대강을 지역주민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습지체험, 조류관찰, 생태탐방 등이 가능한 물환경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 물 부족·홍수가뭄 해결 |

향후 물 부족(2011년 8억 세제곱미터, 2016년 10억 세제곱미터)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해 하도 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 중소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총 12.5억 세제곱미터)를 확보한다. 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4대강에 보 16개를 설치하며, 보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어도(魚道) 등 친환경시설을 설치한다. 중소 규모 다목적댐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 1만8천여 개 가운데 환경영향과 수몰면적이 적은 96개를 개량, 건설한다.

또한 강(江)별 특성을 살리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강은 남한강 홍수방어대책과 레저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낙동강은 홍수방어와 물 확보, 생태복원 등 종합대책을, 금강은 생태복원과 함께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 대책을, 영산강은 홍수방어와 수질개선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하천을 생활, 여가, 관광, 문화, 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자전거길 조성(1천4백11킬로미터),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한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점·핵심관리 유역을 지정 관리하고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며 생태하천과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한다.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작지 보상을 위한 보상센터를 국토해양부 지방청에 설치하고, 지역업체가 사업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 수변공간 재창조 필요 |

지역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역발전, 녹색성장, 국토디자인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건의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4대강 주변을 기후변화 대응, 녹색에너지 창출 등 다양한 녹색성장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으로 조성해 국민이 녹색성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건축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도시와 지역발전의 촉매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수변공간을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변공간을 도시와 삶의 새로운 중심으로 재창조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수변으로의 접근성 개선, 수변중심 도시재생, 둔치활용 다양화,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을 제시했다.

각계 전문가와 광역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건의도 쏟아졌다.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은 4대강 살리기의 명칭을 바꿔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의 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최두남 서울대 교수는 사업대상지에서 수익금을 모아 공통기금제도를 신설해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무환 부여군수는 금강 살리기는 백제시대 문화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인도, 중국 등에 페리를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부처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역량을 집중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층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G

글·최호열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4대강 살리기
"갈라진 국민 마음 바꿀 수 있는 물길 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7일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4대강을 둘러싸고 환경, 문화, 휴식공간, 생산공간 등과 관련된 종합적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청계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청계천 복원 당시에도 주변 상가의 발전,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를 방문한 프랑스 사회학자가 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청계천이 복원됨으로써 서울 시민의 정서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최근 청계천을 다녀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없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6킬로미터, 길게는 12킬로미터의 천변엔 쓰레기통도,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그 어떤 주의문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백만명이 다녀갔는데도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담배꽁초가 없는 모습을 보니 그 사회학자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말에는 이런 일도 포함된 듯싶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에는 높은 수준의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천변을 거닐고 바람을 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도 좋은 환경에 오면 높은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국민의 심성을 바꿉니다. 청계천에는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을 밟아도, 부딪혀도 서로 웃고 화해합니다.

산 너머에 있는 동네끼리는 문화가 다르지만, 강은 1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문화가 같습니다. 중국인은 '물 수(水)' 자와 '같을 동(同)' 자를 합쳐 '동네 동(洞)' 자를 만들었습니다. 물은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강으로 연결되면 갈라진 한국의 정서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강 살리기는 1천만 시민의 마음,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대, 계층, 지역으로 갈라진 마음을 물길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꿈을 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꿈을 어떻게 잘 현실화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꿈은 꿈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마음의 장벽을 없애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도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관(官)과 민간이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4대강 살리기를 잘 만들어 디자이너 등 전문가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고, 기업들이 그곳(4대강 주변)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주

1

연합



광주

2

자전거로 하나 되는 녹색 대한민국

어이, 친구 신나게 밟아보세!

대한민국이 자전거로 하나가 됐다. 자전거는 환경 보전과 에너지 절약, 교통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정부가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엔 3백여 명의 자전거 투어단을 비롯해 3만명이 넘는 자전거족(族)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힘차게 페달을 밟는 참가자들의 얼굴이 따사로운 봄 햇살만큼이나 밝게 빛났다.



연합

동아DB



연합

1 4월 28일 자전거축전 참가자들이 충북 청주 예술의전당을 출발해 대전 둔산대공원 광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2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참가자들이 4월 30일 광주시청 앞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3 5월 1일 경북 상주에서 삿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행진을 벌이고 있다.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범국민적 스포츠 이벤트인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참가자들은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8박 9일 동안 27개 도시를 돌며 1천8백 킬로미터를 주파했다.







1 대전지역 어린이들이 자전거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2 경남 진해의 해군 장병들은 군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
3 공군 5전술공수비행단은 '바이크 데이(bike day)'를 정해 작전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영내에서 자전거로 이동한다.
4 4월 26일 강원 춘천시민들이 의암공원에서 열린 제2회 춘천 자전거축제에 참가해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이색 다국적팀 '롤링 스톤즈'의 자전거 사랑

"굴러가는 돌엔 이끼가 끼지 않죠"

4월 25일 개막한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에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이들이 뭉친 다국적팀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롤링 스톤즈'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이들의 남다른 자전거 사랑에 대해 들어봤다.

오토바이 회사 대표이사, 외국계 금융회사 재무담당 이사, 영국 변호사, 미국 영양사….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에 참가한 '롤링 스톤즈'(Rolling Stones) 선수단의 면면이다.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은 4월 25일 개막해 1천8백 킬로미터의 전국 일주코스를 돌아 5월 3일 창원 입성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롤링 스톤즈는 서울 한남동의 '스톡 바이시클'(Storck Bicycle · 독일 자전거 브랜드) 매장을 찾았던 고객 중 마음 맞는 사람들이 이계웅 할리데이비슨(Harley-Davidson) 코리아 대표를 중심으로 의기투합해 만든 자전거동호회. 롤링 스톤즈 팀 감독을 맡은 문정욱(38) 씨는 "이계웅 대표는 15년 이상 산악자전거(MTB) 마니아였는데 최근 2, 3년 간 철인3종경기 등에 출전하면서 로드 사이클링(도로에서 자전거 타기) 마니아가 됐다"며 "이번 대회에서 부상으로 도중에 경주를 중단한 이 대표 몫까지 남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자전거 경력 28년차인 데이비드 벨(42) 씨는 현재 한국에서 IT회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북미와 유럽에서 열리는 각종 레이싱을 경험한 베테랑 라이더다. 벨 씨는 19세 때 참가한 파리 자전거대회를 잊지 못한다. "서울 인사동 거리처럼 울퉁불퉁한 돌길을 40~50킬로미터쯤 달리다 넘어져 엉덩이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팠지만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회상했다.

"자전거 타기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

스탠 크로커(41) 씨는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 사고를 당했지만 그로부터 1년 반 후 미국 미주리주 자전거경주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거머쥔, 못 말리는 자전거 마니아다. 크로커 씨는 "자전거 타기는 조화를 상징한다. 난 외국인이고 한국어도 전혀 모르지만, 라이딩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룬다. 자전거 타기에 언어는 필요치 않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백 명의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달리는 그 자체가 한 편의 시와 같다. 내 일(스포츠 영양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더 애착이 간다"고 덧붙였다.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에 참가한 '롤링 스톤즈' 선수단.
왼쪽부터 스탠 크로커, 데이비드 벨, 문정욱 감독.

이번 대회에서 팀 매니저 역할을 했던 문정욱 감독의 자전거 사랑도 유별나다. 문 감독은 캐나다 이민자다. 학창 시절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보낸 그에게 자전거는 어릴 적 기억 속 서울을 재발견하게 해준 고마운 존재다.

"걷는 것보다는 빠르고 자동차보다는 느린 '자전거의 시간'이 존재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낮지만 자동차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높은 '자전거의 시야'가 존재합니다. 이 영역은 이제까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자전거를 타는 순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 그 지역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문 감독은 롤링 스톤즈라는 팀명에 대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Rolling stones gather no moss)'는 속담과 관련이 깊다. 자전거 레이서로서의 정신이 담긴 이름"이라고 소개했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으며 새로운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 라이더들에게 '구르는 돌'보다 안성맞춤인 이름은 없을 것 같다. G

글 ·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제공



동아DB

삼성전자의 1분기 순이익이 4억6천2백만 달러를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한국경제 '청신호' 세계가 보고있다

경기하강 속도 완만… 섣부른 회복론은 경계해야

예상을 뛰어넘는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세에 주목하면서 한국경제의 부활을 예고하는 긍정적 전망이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다. '아직 바닥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경계론도 있지만 경기하강 속도가 느려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과감한 재정지출과 세금감면 정책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지난 4분기 대비 0.1퍼센트 포인트 플러스 성장을 보이며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예상했던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4월 24일 온라인판에서 "한국이 경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을 가까스로 모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에 주목하면서 "삼성전자의 1분기 순이익이 4억6천2백만 달러를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평가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기설'에 시달리던 한국경제가 예상외로 빠르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보다 0.1퍼센트 포인트 회복한 것을 두고 한국경제에 불어닥친 한파가 물러나고 '봄날'이 왔다는 보고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불과 '0.1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것을 두고 본격적인 회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히 주목할 만한 변화다.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 보여

해외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들도 한국경제의 부활을 예고하는 긍정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한국경제의 강세가 놀랍고 예상도 뛰어넘었다"며 "더블딥(double deep 일시성장 후 재하강)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다른 경제권보다 잘 견딜 것"이라고 극찬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며 효율적인 경기부양책과 수출회복 전망을 바탕으로 성장률을 올렸다고 밝혔다.

정부도 한국경제의 회복을 알리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28일(한국시각) 미국 뉴욕에서 라자드자산운용, 소로스펀드 등 현지 주요 투자자 1백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



〈뉴욕타임즈〉 4월24일자 온라인 기사.

South Korea narrowly avoided slipping into recession, and the country's corporate giant, Samsung Electronics, reported better results than expected for the first quarter – news that provided some relief to an economy that continues to be battered by crumbling exports.

한국은 가까스로 경기침체를 벗어났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전자는 올1분기에 더 나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러한 뉴스들은 수출급감에 시달려온 한국경제에 안도감을 안겨주고 있다.

서 "한국경제가 경기 바닥에 근접한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회복 징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경제지표들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다. 한국은행이 4월 28일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심리지수(CSI)는 98로 전월(84)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분기(10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 자체는 2005년 1분기(19포인트) 이래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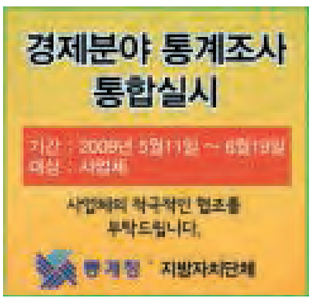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난 2월 CLI가 94.5로 전달의 92.9보다 1.6포인트 증가해 경기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록한 것으로 G7(−0.9), OECD(−0.9)의 평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각각 −0.7과 −0.5를 기록, 경기후퇴 양상을 보인 데 반해 우리만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선 브로큰 윙 우려도… 고용 상황 나아져야

2월 광공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6.8퍼센트 증가했다. 소비재판매도 5퍼센트가 늘어나면서 국내 경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 무역흑자도 6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의 봄기운은 산업현장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수출 주력업종인 전자업계의 분위기가 밝다. 삼성전자의 주력 수출상품인 LCD TV는 지난달 미국시장 점유율이 26퍼센트로 2위인 소니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LCD패널 수출도 올들어 2월까지 27.3퍼센트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여 세계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

LG전자의 폴란드·멕시코 공장의 가동률은 사실상 '풀가동' 상태이며, 구미 LCD TV 라인도 1월 이후 1백퍼센트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내수와 수출 모두 2분기 전망이 100을 넘어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지금보다 업황을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경계론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오문석 거시경제실장은 "바닥을 지났다고 하기엔 이르다"며 "급속한 경기하락이 완만해지고 있지만 미국경제는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아직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연출된 반짝 경기라는 이야기도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축포를 쏘기엔 조금 이르다"며 날개가 부러진 새가 날지 못한 채 파드닥거리다가 다시 주저앉는 이른바 '브로큰 윙(Broken Wing)' 현상을 우려했다.

당장 고용지표는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며 실업자 1백만명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통계청은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2천3백1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천3백30만5천명)보다 0.8퍼센트(19만5천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39만명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여전히 최악인 상태이며 고용지표 역시 전혀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회복을 판단하기 위해선 고용상황이 나아져야 한다는 해석이다.

정부도 조기 경제회복론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하강 속도가 완화된 것은 분명하다"며 "세계경제의 흐름과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계속 마련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G

글 · 이규성 아시아경제신문 정치경제부 기자



즐거울 때도 가족, 어려울 때도 가족

가출, 성매매, 범죄….
청소년이 ‘꿈’을 먹고 자란다는 말을 무색케 하는 시대다. ‘꿈’ 대신 ‘좌절’을 곱씹으며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이 많은 사회는 미래가 결코 밝을 수 없다. 누가 뭐래도 미래의 주역은 그들이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농부가 작물에 정성을 기울여야 하듯,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 우리의 미래 주역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할 요즘이다.
자녀는 부모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보게 된다.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소중히 지켜가는 것 역시 미래세대에겐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는 일이다.



일러스트 · 추덕영

함께 밥 먹고 함께 웃는 우리 가족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보석

장기불황에 가정이 멍들고 있다. 남편이 아내 곁을 떠나고, 엄마가 아이를 버리는 세상이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있다.
가장의 사업 실패, 가난과 폭력 속에서도 함께 있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름다운 가족'을 만났다.



사업 실패로 파산선고까지 받은 김윤상 씨가 재기하는 데는 가족들의 한결같은 지원이 큰 힘이 됐다.

1억 빚 털고 새 출발한 일식조리사 김윤상·하귀야 부부

"지금의 내가 있는 건 믿어준 가족 덕분"

서울지하철 3호선 매봉역 부근에 문을 연 일식집 '스시생'의 주인 김윤상(46) 씨. 간판이 달리는 걸 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서렸다. 열서너 평 남짓한 작은 가게는 남들이 보기엔 대수롭지 않았겠지만, 그에겐 '기적'과도 같았다.

1989년 관광공사 호텔학교 조리과를 졸업할 때만 해도 그는 남부럽지 않은 가장이었다. 일식 기능사와 양식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울시내 유명 호텔과 일식전문점을 거치며 기술을 익혔다. 그렇게 10년 세월을 보낸 후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35평의 근사한 일식집을 차렸다. 그러나 2년 만에 가게는 문을 닫았다. 4천여만원의 빚을 남긴 채였다. 배달전문 일식으로 전환했지만, 다시 실패했다. 이번에는 배달사원 관리가 문제였다. '햄버거'에 손댔지만 역시 망했다. 자영업자가 된 지 5년 만에 빚은 1억원으로 불어 있었다.

"기술만은 자신 있었는데, 나이가 있어서인지 그땐 주방 자리도 나지 않더라고요. 부르는 데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일을 했고, 막노동판도 마다하지 않았죠."

집에 돈이라곤 5천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던 날도 있었다. 아내 하귀야(43) 씨도 팔을 걷어붙이고 일용직 청소원으로 나섰다. 겨우 전남 순천에 자리가 났다. 남편은 순천에,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 남았다. 김 씨가 주말에 상경해 가족들 얼굴만 보고 다음날 새벽 기차로 내려가는 일이 되풀이됐다.

집에 단돈 5천원 한장뿐…

김 씨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고생을 못하랴 싶었죠"라며 그때를 떠올렸다. 하지만 아내 생각은 달랐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저도 순천으로 내려갔지요. 남편만 고생하도록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 중학생이던 큰아들은 낯선 그곳에서 적응을 못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하 씨는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집안 형편을 설명하고 납득시켰다고 한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아빠는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고 말해줬어요. 아이들도 원망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절망 속에서도 김 씨는 매일 희망을 꿈꿨다. 자신의 실패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구상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책들을 읽은 게 도움


남편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아내 하귀야 씨.

이 됐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부에겐 신앙 또한 힘이었다.

"꿈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열심히 꿈꾸었고, 마침내 기회를 만났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사회연대보증은행이 주관해 저소득층에게 장기저리로 돈을 대출해주는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자금'은 깜깜한 터널 안에서 만난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는 서류를 준비해 구청에 신청했다. 서류심사 통과, 면접, 실기시험을 거쳐 10 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그렇게 창업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 창업 아이템은 머릿속에 이미 있었다. 1만원대 중저가 초밥집. 신선한 재료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되 인건비나 상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게 경영 원칙이었다. 마포구 연남동에서 비슷한 컨셉트의 가게를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는 선배를 멘터로 삼았다.

"바닥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당시 김 씨의 주변에는 '작은 기적'이 연이었다. 주택 문제도 그랬다. 수도권에 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동탄지구 임대아파트 청약에 도전했다. 35가구가 남았는데, 그가 가진 번호는 57번. 남들은 순번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는 버텼다. 그리고 마지막 한 채가 그의 집이 됐다. 골칫거리였던 보증금도 처남들이 선뜻 빌려줬다.

"이젠 정말 열심히 해야죠.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요. 강남구청에서 빌려준 돈을 매달 80만원씩 갚아나가고, 우리 가족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돼요."

김 씨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게 두렵지 않다고 했다.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또 제겐 무슨 일을 해도 믿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인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는 옵니다."

상도동 단칸방에서 단란하게 살아가는 이희자 씨 가족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굽이굽이 올라가면 작은 초록색 대문과 만난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주한 작은 문을 열면 단칸방이 모습을 보인다. 이곳이 어머니 이희자(42) 씨와 중학교 2학년인 큰 아들 승재, 1학년 윤재의 보금자리다. 부엌과 욕실을 겸한 작은 공간에 방 한 칸. 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 16만원. 방이래야 세 식구가 다리를 오므려야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작지만, 이 가족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다.

"얼마 전 계약기간이 끝나서 방을 비워줘야 해요. 재개발이 확정됐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후원단체에서 주택비 지원을 조금 받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씨의 제일 큰 고민은 집 문제다. 아이들이 쑥쑥 자라고 있어 지하방이라도 좋으니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


"공부가 가장 재밌다"는 모범생 승재.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나가서 일이라도 한다면 돈 모으기가 수월할 텐데, 여간해서는 구직이 쉽지 않다. 이 씨는 젊을 때 뇌종양 수술을 받은 터라 3급 호흡기장애를 갖고 있고, 오른쪽 눈은 실명했다. 다리도 불편하다. 이 씨 가족은 정부 보조금 70여만원과 기아대책 행복한 홈스쿨에서 3년째 매달 지원해주는 후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가계에 보탬이 될까 해서 이 씨는 재택 아르바이트로 커튼 레이스 자르기를 하고 있지만 그나마 그 일마저 끊긴 상태다.

그래도 이 씨는 늘 웃는다. 가난 속에서도 비뚤어지는 일 없이 늘 엄마를 아끼는 두 아들 승재와 윤재가 있기 때문이다. 알코올중독자였던 남편의 10년 가까운 폭력에서 벗어나려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도 두 아들에게만은 그늘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결혼하고부터 노상 맞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애가 벌벌 떨면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혼했죠. 그땐 위자료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이희자 씨 가족은 비록 단칸방이지만 함께 있어 행복하다고 힘줘 말한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두 아들은 반듯하게 자라주었다. 공부만큼은 욕심쟁이인 첫째 승재와 다른 친구들처럼 게임기 사달라고 떼도 쓰지만 '애교 백단'인 둘째 윤재는 이 씨에겐 보물덩어리다.

현재 '특목고 대비반'에 들어갈 만큼 공부를 잘하는 승재는 반에서 2, 3등을 다툰다. 학교의 소등시간인 밤 10시가 넘도록 공부하다 선생님한테서 "집에 가라"고 혼나기(?) 일쑤다. 책상도 없는 집에 와서도 새벽 1시까지 공부해야만 잠자리에 든다. "인근 학원에서 학원비도 받지 않고 공부시켜준다"고 이 씨는 자랑스레 덧붙였다. 인터뷰 내내 게임기를 만지작거리던 둘째 윤재는 "무슨 과목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공부 잘하는 형을 의식해서인지 "체육시간"이라고 능청을 부린다. 하지만 이 씨의 귀띔에 의하면 윤재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한다.

"결혼하고 노상 맞았어요. 애가 우울증 보여 결국 이혼했죠." 가난한 집안 형편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물어보았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싸우거나 말썽을 피우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이 씨는 문 위에 걸린 회초리를 가리켰다.

"엄마 혼자 키우는 집 애들이라서 저렇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일부러 엄하게 했어요. 제가 회초리를 들면 애들이 묵묵히 그 매를 다 맞아요. 한번은 둘째를 나무라고 있으니까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대신 맞을게. 윤재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고요."

"지금은 절대 그런 말 안 해." 어릴 적 일화를 듣는 게 겸연쩍은지 승재가 대뜸 내뱉는다. 윤재는 형을 빤히 쳐다보다 입을 삐죽댄다. "형은 학교 마치고 맨날 PC방에 간대요." "안 간다니까, 임마!" 한참 사춘기에 접어든 형제는 사소한 일에도 티격태격이다.

"얼마 전에 윤재가 하도 사달라고 졸라서 게임기를 사줬더니 큰애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돈 아껴야지, 엄마는 쓸데없는 데 돈 쓰게 놔뒀다고, 형이라 그런지 의젓해요."

마지막으로 두 형제에게 물어보았다. 남들보다 가난한 집안 형편이 속상하고, 부모가 원망스럽지는 않으냐고. 형제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윤재) "우린 늘 붙어 있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니까 (단칸방이라도) 괜찮아요"(승재)

몇 십억 유산을 두고 형제간에 소송이 벌어지는 게 요즘 세태다. 하지만 달동네 승재네는 보여준다.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G

글 · 정지연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가정 파국→가출→범죄→절망

아파하는 아이들 국가가 손 잡아야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 가출 등에 따른 청소년 비행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고, 가출청소년이 늘고, 청소년 범죄가 많아질수록 사회와 국가 역시 위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4월 29일 새벽 1시.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서울 신촌의 한 PC방. 밤늦은 시각인데도 10대와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청소년 10여 명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대부분 혼자서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채 조용히 모니터를 주시하며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다. 한창 공부를 하거나 다음날 일을 해야 하는 이들이라면 이토록 늦은 시각까지 PC방에서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진 않을 터. 옆자리에 앉아 있는 청소년에게 조심스레 말을 붙여보았다.

"PC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가출청소년이 많다면서요?"

그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누가 '나 가출했다'고 써놓고 PC방에 다녀요?"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각이지만 신촌 일대는 여전히 불야성이다. 노래방에 도우미를 실어 나르는 차들이 분주히 오가고, 취객이 비틀거리며 택시를 기다린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의 모습도 자주 보인다. 두서너 명씩 어울려 심야 밤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도 드물지 않다. 정열이 넘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체념한 듯 떠도는 그들의 모습에서 애처로움마저 느껴졌다.

서울 K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이영호(가명) 교사는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는 대부분 가정환경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교사는 "부모가 폭행을 일삼거나 불화가 심하면 사춘기 아이들의 반항심이 커져 말다툼 끝에 집을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한 반에 4, 5명 정도 (가출한 학생이) 있다"고 전했다.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각이지만 신촌 일대는 여전히 불야성이다. 두서너 명씩 어울려 심야 밤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도 드물지 않다. 정열이 넘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체념한 듯 떠도는 그들의 모습에서 애처로움마저 느껴졌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대개 술집 같은 유흥업소나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PC방을 전전하며 지낸다고 한다. 그러다 단칸방에서 남녀가 섞여 자취를 시작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성관계까지 갖기도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탈선에 그치지 않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동아DB



가출소녀 인권대회 '꽃들에게 희망을'에 참가한 소녀들이 연극을 공연하고 있다.

올해 들어 두 건의 청소년 범죄가 알려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3월 중순, 동거하던 10대 남녀 4명이 정신지체 장애인 유모 양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유 양이 다른 남자와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유 양의 남자친구 이모 군 등 일행이 흉기까지 사용해 유 양을 20일간 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사건이다.

3월 초에는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알몸 여중생 폭행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동영상 속 여중생들은 벌거벗겨진 채 서로 때리기를 강요당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행이 뒤따랐다. 범인은 또래인 10대 청소년들로 가출한 여중생들을 인터넷으로 유인해 성매매에 이용했고, 여중생들이 도망치자 협박용으로 찍어놓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사건은 가출청소년들이 저지른 범행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부모와 학교에서 떨어져 나와 그들만의 세



동아DB

건강한 가정은 위기가 닥쳐도 이겨낼 힘이 생긴다. 사진은 육아데이를 맞아 여성부가 주최한 '최고의 프레디(Friend+Daddy)'를 찾아라 행사.

상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박OO(만 15세 · 여) :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OO(23세 · 남)과 성매매. 가출청소년으로 지낼 곳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김OO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9개월간 동거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생활비 명목으로 가로챔.

#서OO(만 16세 · 남) :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새로 이사 온 곳에 적응하지 못해 가출한 후 성인여성 3명과 만나 성매매. 이 중 보험설계사 한OO(21세 · 여)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이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단속한 내용 중 일부다. 성매매 청소년은 2008년 상반기 단속에서 36명이던 것이 하반기 들어 69명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가출청소년들이 과거에는 주로 주유소나 PC방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을 조달했지만, 경제 한파로 이마저 줄게 되자 용돈벌이로 성매매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가출청소년들은 주로 PC방이나 컴퓨터가 설치된 모텔 등에서 성매수자를 찾기 위해 대화방을 개설해 유인한다.

청소년 성매매뿐 아니라 청소년 범죄도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4월 13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청소년 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었다. 2008년 방화 범죄의 경우 2006년에 비해 무려 65.5퍼센트 늘었고, 강도 범죄도 같은 기간에 35.5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의 증가 원인을 '가정문제'에서 찾는다. 가정불화가 청소년의 가출을 부추기고, 가출을 하게 되면 급기야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찍히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불화에 따른 이혼의 부작용은 곧바로 자녀에게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치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혼한 부부의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무려 10만2천7백명이었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이혼 가정의 자녀가 모두 가출하거나 비행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에 따른 불안정한 가족관계는 청소년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고한다. 서울가정문제상담소 김미영 소장은 "부

모 이혼으로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는 부모를 여읠 때 받는 느낌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역할 모델과 상호 협력의 부족 등으로 사회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족의 보호가 없거나 불화를 겪는 가정의 자녀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가출하게 되고 비행청소년이 되기 쉽다. 부부 사이에 인륜이 있다면,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 있다고 한다. 어떤 이유로든 인륜을 다하지 못하면 천륜까지 위태로워지는 셈이다. 최근에는 황혼이혼까지 느는 추세여서 또 다른 가정 위기의 요인이 되고 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

2008년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은 2만6천9백 건으로 총 이혼 건수 가운데 23.1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보다 1천9백 건 늘어난 것으로 3퍼센트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혼 부부의 주된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가 47.8퍼센트로 가장 많았지만, 경제문제가 이혼의 이유가 된 비율도 14.2퍼센트에 달했다.

김미영 소장은 "건강한 부부는 위기가 닥치면 더욱 결속력을 다진다. 그렇지 못한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같은 외부적 요인이 가세하면 더 큰 위기로 치달아 파국을 맞기 쉽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반드시 경제위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다기보다는 가부장적인 문화나 고부갈등, 잘


동아DB

서울대공원에 봄나들이 나온 가족이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못된 경제관념 등 평소 복합적인 갈등이 안으로 쌓여 있다가 경제위기가 눈앞에 닥쳤을 때 이것이 폭발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분석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듯, 건강한 가정 역시 평소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겨낼 힘을 낼 수 있다. 국가와 사회는 따지고 보면 수백만 가정의 집합체와도 같다. 그래서 가정을 사회의 축소판이라고도 한다. 위기로 치닫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의 현실은 한국사회 곳곳이 멍들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가족 해체에 따른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미래 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G 글 · 구자홍 기자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예방을 위한 전문가 진단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과 사회적 관심"

전문가들은 가출청소년과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정 내에서 인성교육이 먼저 이뤄지고, 학교와 사회로 점차 퍼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하대 법학과 원혜욱 교수는 "청소년 범죄는 가정, 학교, 사회 환경적 원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학교교육의 문제점이 청소년 가출과 비행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 교수는 "학교가 입시 위주 교육으로 흐르다 보면, 열등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뜻이 맞는 아이들끼리 가출하게 된다"며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들을 받아줄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원 교수는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경우 길거리 농구를 할 수 있는 농구장 등 아이들끼리 모여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우리나라에 비해 잘 갖춰져 있다는 것. 원 교수는 "청소년들이 몸을 부딪치며 스트레스를 풀게 되면 가출이나 범죄 성향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대처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청소년 문제도 적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김태성 선임상담원은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연습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김 상담원은 "가출청소년이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내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지고 점차 학교와 사회로 퍼져나가야 하는데, 부모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을 게을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친밀감이 형성돼야 서로 대화가 된다"고 조언했다.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은 "청소년 범죄가 모두 가정문제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잉태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가정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부모와 가정의 체계 문제로 봐야 한다"며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내 새끼, 말 안 듣고 사고 치면 남의 새끼' 대하듯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어느 아이가 사고를 쳤다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울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벼랑끝 청소년, 정부가 껴안는다

경제위기 따른 청소년 문제 부처협의회 구성해 대응

정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5월 1일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전담 태스크포스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의 위기청소년 관련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내놓았다.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했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됐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총괄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의 위기청소년 대책을 종합해서 추진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관련 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학교 상담 내실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학급별로 담임교사의 가정방문과 현장지도 등 위기청소년 상담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수업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평생교육시설과 사회복지관 등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위기청소년 수용 비율이 높은 대안교육기관에는 정부지원을 늘려주고, 대안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편법운영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또 위기청소년 상담과 지도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비정부기구(NGO)를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상담전문 자격증을 가진 퇴직교원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상담지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기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보호시설 관련 정보는 물론 상담과 아르바이트 알선, 법률과 의료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을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개별적인 시스템을 연계해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별로 '소년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대상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과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재소자 컨설팅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확대해 비행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G

정리 · 구자홍 기자


동아DB

가출청소년이 가면을 쓴 채 성매매 피해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

고민 있으세요? 1388 누르세요

세상에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질풍노도기라는 청소년기에는 대인관계와 학업, 진로 등 다양한 고민거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더욱이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 사이에 불거진 문제일수록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고민을 나눌 대상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에 전화를 거는 것이다.

학업과 진로, 가정문제와 대인관계 등 일반상담은 물론 가출과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 위기 긴급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위기 긴급상담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긴급구조 활동도 펼친다.

청소년전화 1388은 보건복지가족부 주도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전국 1백40곳의 청소년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1년 3백65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제 어느 곳에서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곁에 제일 먼저 달려가기 위해 '1388'은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된다.

고민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절반이 해결된다고 하지 않던가. 혼자서 고민을 안고 끙끙 앓지 말고 조금만 용기를 내서 버튼 네 개(1388)를 눌러보자.

학교 부적응·게임 중독 슬기롭게 해결한 모범 가족

아이들 입장에서 귀기울여 보세요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내 아이만은….'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문제다. 학교 부적응, 인터넷 중독 등 아이들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가족들의 사연은 어떨까.

학교 부적응으로 고민하던 딸과 화해한 엄마 임미정 씨

"아이의 선택을 믿어줘야죠"

엄마들은 내 아이가 남들보다 잘나기를 바란다. 잘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남들만큼만은 하길 바란다. 그러나 임미정 씨는 큰딸 솔향이가 대안학교를 고집하면서 '남들만큼' 이라는 욕심을 버렸다.

"중1 때 딸의 성적이 바닥이었어요. 주변에선 성적은 지금 잡아야 한다고 했죠. 시쳇말로 아이를 잡다시피 했어요."

전쟁이 시작됐다. 공부를 하기 싫다고 발악하던 딸은 "가출해버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고, 임 씨는 악다구니를 하다 지쳐갔다. 결국 손을 들어버린 건 엄마였다. 이러다간 부모 자식 관계마저 망가지겠다 싶었다.



조영철 기자

임미정 씨는 아이의 행복이 부모의 욕심보다 우선이라 생각한다.

엄마가 손놓고 나자, 아빠가 나섰다. 퇴근 후면 '과외선생'을 자임하는 아빠와 딸의 2차 전쟁을 지켜보던 임 씨는 탈출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는 학부모가 충북 제천의 '꽃피는 학교'를 추천했다. '예비학교 3일 과정'에 참여한 딸은 대뜸 "나, 이 학교 갈래"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았다. 꽃피는 학교의 운영규칙상 형제가 함께 입학해야만 했다. 그래서 한 살 터울 동생 동민이도 누나와 함께 다니기로 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남매가 같은 학년을 다녀야 했다. 그렇게 해서까지 대안학교에 가야 했는지 궁금했다.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의 몫

"동생들과 지내는 게 힘들었지만, 성적으로 차별하는 일반 학교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솔향이의 말이다.

"대안학교에서는 아이가 너무 잘 적응하더라고요. 제 욕심보다 아이의 행복을 우선하기로 했죠."

꽃피는 학교의 중등과정을 마치고 솔향이는 서울 영등포의 대안학습 공간인 '하자센터'로 왔다. 그는 학교가 아니라 '놀이단' 소속이다. '놀이단'은 하자센터가 세운 기업으로, 재활용 악기를 전문으로 하는 공연집단이다. 솔향이는 오전 10시에 이곳으로 '출근' 한다. 고등부 과정을 다 마치지도 않았지만, 음악을 하고 싶다는 본인의 희망을 학교와 부모 모두 존중해줬다.

"주변 친구들은 대학 진학을 할 텐데 걱정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솔향이는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대학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놀이단 활동은 음악활동 경력으로 다 인정되거든요"라고 씩씩하게 답했다.

솔향이가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건 임 씨의 지원이 있어서다. "모범생으로 커서 처음엔 딸을 이해하기 어려웠죠"라는 임 씨는 "상담치료사 공부가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됐어요. 먼 훗날의 행복을 위해 아이더러 지금을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라고 말했다.

남들 하듯이 임 씨도 걱정도 되고 안타까움도 있다. 지금도 남편은 자녀가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임 씨는 아이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것이 부모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들의 인터넷 중독 해결한 아빠 전종천 씨

"게임중독… 부모의 모니터링이 해답"

#1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전화요금 고지서를 보던 전종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른 때보다 전화요금이 무려 4만원 더 나왔다. 전화회사에 요금 결제 내용을 확인했다. 역시나 온라인게임 때문이었다. 자동응답전화(ARS)로 게임비를 결제했냐는 추궁에 아들은 놀러온 친구가 그런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2 방과후학교에 갔던 중2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교실에 가보니 문은 잠겨 있었다. '땡땡이'가 분명했다. 하지만 평소처럼 오후 8시에 집에 들어온 아이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아들의 옷에서는 희미하게 담배 냄새도 났다. 직감적으로 PC방이구나 알아차린 전 씨가 어디에 있었냐고 캐물었지만 친구랑 농구를 했다고 말할 뿐이었다. 아들을 앞세워 찾아간 PC방 앞에서 그는 역시나 부모의 손에 끌려온 아들 친구와 맞닥뜨렸다.

전 씨는 온라인게임을 두고 아들 수민이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승강이를 벌여야 했다. 게임에 빠져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아들은 게임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했다.

"중2 때의 'PC방 사건'이 제일 컸지요. 너무 화가 나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놓고 '맞자!' 했어요. 10대를 때리고, 아들 머리를 박박 밀어버렸죠. 다른 때 같으면 금세 기분을 풀던 아이도 단단히 골이 났는지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려 들더군요."

전 씨도 화가 났다.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이혼한 이후 직업보다도 아이와의 시간을 늘 우선했던 그였다. 아이가 온라인게임에 큰돈을 썼던 그때, "내 탓이오"라며 에버랜드 연간이용권을 끊어 주말마다 나들이를 가는 것으로 벌을 대신했던 그였다. 그랬건만, 아이는 온라인게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 씨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아들에게 노트북을 사주고, 케이블TV를 볼 수 있는 연결잭도 함께 사줬다.

"이건 신뢰의 문제다. 언제까지 아빠가 널 못 믿고 일일이 확인해야 하겠느냐. 아빠는 그러고 싶지 않다."


정경택 기자

수민이는 아빠의 관심이 있어서 온라인게임과 멀어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전 씨의 이 말 이후 아들은 인터넷을 하는 횟수가 줄었다. 딱 한 번, 모니터에서 온라인게임 바로가기 아이콘을 발견했지만 전 씨는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아들의 항변을 믿어줬다. 아이는 아빠와 약속한 대로 'TV 시청은 일주일에 두 시간만, 온라인 게임은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잘 지켰다. 이제 열일곱 살이 된 아들은 온라인게임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전 씨의 인생도 바뀌었다. 전 씨는 놀이미디어교육센터에서 강사로 일하며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을 역설하고 있다.

"가장 필요한 건 부모의 관심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가 아이들의 컴퓨터 사용 습관을 모니터링한다면 아이는 접속하는 사이트나 사용시간에 더 주의하게 되죠. 무엇보다 컴퓨터 세대인 요즘 아빠들이 문제예요. 야동 사이트는 큰일 날 것처럼 차단하면서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에는 관대하거든요." G

글 · 정지연 기자

벼랑 끝 청소년의 수호천사

절망하기 전에 단계적으로 도와야

가정불화, 학교폭력, 게임 중독으로 멍들어가는 아이들. 벼랑 끝 위기에 선 아이들을 돌봐주고 지원해주는 다양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소개한다.

| 지역사회와 보호자 연결 아동보호 서비스 |

경기 불황이 가정의 위기와 해체를 증폭시키고 있다. 저소득 가정들이 가장 궁지에 몰리는 피해자들이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적인 기회의 박탈, 영양실조나 정서 불안, 일탈과 학대라는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행복한홈스쿨'이다. 사단법인 기아대책, 기업, 교회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지역사회와 보호자를 연결해 종합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4년 창립되어 전국 6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한부모가정이나 조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이나 결식아동을 최우선으로 돕고 있다. '행복한홈스쿨'의 활동은 생계비 지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김고운 홍보팀 간사는 "다양한 학습지원과 특기 교육, 간식과 식사, 심리검사와 문화 체험 등으로 저소득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힘쓰는 것이 목표"라며 "기업과 학교, 병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결망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68개 교회, 18개 기업이 결연단체로 연결되어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국내에 6개 지부를 두고 17개 시설을 운영 중인 아동 보호 단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권리 옹호사업, 아동보호 사업, 긴급구호 사업, 의료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개인 또는 기업, 단체 후원자와 1 대 1로 맺어주고, 매월 생계비, 교육비,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부모의 실직, 이혼, 별거, 복역, 학대 등의 문제로 아이가 친부모로부터 양육받기 어려운 경우, 대리 보호를 하도록 하는 위탁사업과 학대아동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문의 : 행복한홈스쿨(02-544-9544),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02-6900-4400)



'행복한홈스쿨'은 지역사회와 보호자를 연결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동아DB

학생들이 학교폭력 근절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왼쪽).
아이의 학습장애나 행동장애가 걱정된다면 전문가의 면담을 받도록 한다.

| 폭력에 고통받는 청소년 보호 ‘수호천사 운동’ |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은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비영리 공익단체이다. 이 단체는 1995년 학교폭력으로 외아들을 잃은 김종기 씨가 설립했다. 신체폭력이나 금품 갈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물론 예방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청예단의 활동 중 눈에 띄는 것은 ‘수호천사 운동’. 2004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후원자 및 시민들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추천받아 1 대 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와 왕따닷컴도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기관이다.

아이가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 부적응 증상’에 시달린다면,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에 문의해보거나 ‘하자센터’ 등을 방문해 봐도 좋다. 어느 정도 결심이 섰다면, 대안교육학부모연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안교육학부모연대는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거나 졸업생 자녀를 둔 대안학교 학부모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학교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모색한다. 이 모임의 손경덕 사무국장은 “대안학교는 학부모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02-325-2542) 왕따닷컴(www.wongtta.com), 대안교육학부모연대(http:// cafe.daum.net/mfcomm)

| 학습장애 · 행동장애가 생긴 경우 |

초등학교 아이 중에는 유독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며, 선생님이나 학교가 제시하는 규칙이나 규율을 잘 따르지 않는다. 또 욕을 입에 달고 살거나, 또래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거친 언사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 부모들은 이런 아이들을 ‘나쁜 아이’라고 꾸짖기 쉽다. 부모와 자녀 간에 오해의 골만 커진다.

이런 증상은 아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학습장애나 행동장애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학습장애란 아이가 듣기, 말하기, 읽기와 쓰기, 산수 계산 등의 능력을 습득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걸 말한다. 이럴 때는 가까운 병원의 학습장애 클리닉이나 한국아동상담센터를 찾아가 심리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한국아동상담센터는 각 분야 전문가가 모인 치료 전문 집단으로, 발달 평가 및 성격, 지능검사는 물론 심리검사(지능 및 정서, 주의력 검사), 발달평가, 놀이평가 및 치료, 언어치료, 학습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유독 거친 행동을 보이는 아이라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A)일 수 있다. 사랑샘터연구소는 학습인지 치료, 놀이클리닉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의 심리 발달을 돕는다. G

문의 : 한국아동상담센터(02-3476-5009) 사랑샘터연구소(02-929-0241)

글 · 정지연 기자

취약가정 지원,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책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취약가정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안심시키는 보육서비스부터 실직가장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가정방문 인터넷 중독 치료까지 폭넓은 정부 대책이 위기 가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 동화책 50권씩 기증 |

서울 성북구에 사는 유진희(가명 · 5) 양 가족은 의료기구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수입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이다. 1남 3녀인 진희 양의 형제자매 중 유일한 오빠는 어린 시절 생긴 폐 이상으로 건강이 악화돼 지금은 목에 관을 꽂아 유동식을 넣어줘야 한다. 온 가족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희 부모님은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길 희망했다. 희망은 실현됐다. 셋째인 진희가 2008년부터 정부의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받아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데 이어 지난 4월 드림북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되어 약 50권의 도서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은지(가명 · 6) 양도 진희 양과 같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와 드림북 지원 대상자다. 1남 3녀를 둔 은지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인 은지 양의 언니는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 단칸방에 살다 보니 은지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받을 때면 온 식구가 밥상 앞에 모여 앉는다. 은지 모습을 보며 모처럼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진희와 은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이 책을 더 읽고, 책을 통해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4월부터 드림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드림북 프로젝트는 저소득, 장애 등 취약아동을 둔 가구나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에게 도서를 무상 기증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29만 권(29억원 규모)이 지원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영 · 유아 가구 중 매월 2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50권 내외의 도서를 지원하고, 매월 도서 구비가 미흡한 아동복지시설 두 곳에 시설당 5백 권의 도서를 지원한다. 드림북 도서지원을 원하는 가구나 아동공동시설, 공동생활가



드림북 프로젝트 수혜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성동구 왕십리 2동 화성영아원을 방문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i-사랑카드 제도와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정,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나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제공 교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07년 8월 시작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전국 가구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월 3백91만1천원) 이하 가구의 만 2~6세 아동을 대상으로 10개월간 본인 부담(월 2천~2만8천원)을 최소화해 1 대 1 맞춤형 독서지도, 도서지급이나 대여, 인지발달검사 등을 해준다.

| 보육시설 옮길때 제출서류 간소화 |

'가정의 달'인 5월부터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i-사랑카드 사업에 앞서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서울 광진구와 부산 사상구, 강원 횡성군 등 3개 지역 어린이집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i-사랑카드란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부모가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 i-사랑카드는 신용카드 기능도 있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를 둔 부모가 i-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할 경우에는 결제금액이 평균 5일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입금된다.

i-사랑카드 제도는 보육료 전액을 부모가 지급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보육시설 수요자로서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입소 때나 다른 시설로 옮길 때마다 보육료를 감면받기 위해 제출하던 서류가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무엇보다 정부지원을 받는 사실이 가려져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i-사랑카드 이용 대상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다. i-사랑카드는 정부지원 대상자 여부 판단을 위해 맨 처음 신청할 때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게 되며, 분실이나 카드 손상 등에 따른 단순 재발급은 신한카드, 신한은행, 우체국 등에서 할 수 있다.

| 초등학생 학습돌보미도 파견 |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복지망을 통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4월부터 전국 2백32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65개 시군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돼온 이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5천원의 돌보미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4천~1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소득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지역 사업기관에 회원등록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 2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거주지역 사업기관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2008년에 3만가구가 이용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부터는 저학년 초등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돌보미도 신규로 파견하는 등 각 가정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02-2023-8607,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02-3141-5477

| 실직 후 1년간 건강보험 유지 |

실직자 가정을 위한 건강보험의 안전망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범위 확대와 건강보험진료비 상한액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6일자로 공포 시행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직장가입자 당시의 총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의 50퍼센트만 납부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부모교육에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까지 폭넓은 가정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고 실직한 사람'으로 그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원 기간도 '12개월'로 확대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 동안 종전처럼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27만2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 가정방문 상담은 취약계층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가 직접 신청자의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대폭 경감한다. 즉, '6개월 2백만원'인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연간 2백만~4백만원'으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 인터넷 중독, 집에서 치료 |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까지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신체장애인, 한부모가정 자녀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상담해주는 가정방문 상담이 5월부터 실시된다. 우선 인터넷 중독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인터넷 중독 가정방문 상담은 취약계층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가 직접 신청자의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상담 대상자는 가정적, 경제적, 신체적 여건이 어려워 상담기관을 쉽게 방문할 수 없는 중증 신체장애 청소년,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자녀, 저소득층 자녀, 성인 무직자 등이다.

상담 방법은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가 가정을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수도권에 25곳), 병원 등과 연계해 개인당 10회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가정방문 상담에서는 △상담 대상자의 중독 여부를 진단하고 △가정 내 컴퓨터 설치장소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점검하며 △인터넷 이용습관 조절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신청자 가족도 함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방문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대상자 본인이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 또는 인터넷 중독 전화상담 전국대표전화(1599-0075)로 신청하면 된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지원 서비스 강화

부모를 찾아가 '가정 세우기' 교육

아빠 부재와 같은 한국 가정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친가족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건강하고 바른 가정 세우기가 요원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만들어진 곳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다.



고선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 설립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아버지교육'과 더불어 올해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마련하는 등 교육과 상담, 가정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82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부의 가정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연계해 건강가정사업의 큰 틀을 개발하고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총괄기획, 조정, 지원, 평가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고선주(44)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생활과 관련한 생애주기별 교육사업과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아버지교육 사업, 가족상담 및 이혼전후 상담 사업 등을 꾸준히 해왔다"며 "올해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전국 확대와 더불어 가족품앗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가정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가족품앗이 사업은 동네 주민들끼리 육아 품앗이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가족과 가족들이 이웃으로 알아가며 필요한 물품과 정보,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네 아나바다' 등의 나눔활동과 가족봉사단 활동 등을 지원하며, 이웃끼리 사귀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내고 있다. 이밖에도 놀토와 임시휴교, 방학 중에 가족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또 최근의 경제위기가 가족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올 하반기에는 지역 상담기관과의 상담업무 연계 강화를 통해 좀 더 쉽게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 센터장은 "우리 센터로 오기 어려운 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맺어 교통사고를 당해 급작스럽게 경제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중심으로 부모 퇴근 전까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가정 내 돌봄 사업'을 현재 두 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 강북구, 경기 고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고 센터장은 "이러한 사업은 특히 돌봄 기능이 약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과 후 또는 긴급상황 때 공동육아 돌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가정의 달 각양각색 볼거리 가득

5월만큼은 내 가족부터 챙기자

5월은 기대와 설렘에 부푸는 뜻깊은 달이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부부의 날까지 기념할 날도 많고 휴일도 많다. 화창한 날씨에 때맞춰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가족을 위한 이벤트들을 소개한다.

가정의 달인 5월은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18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까지 가족을 위한 날이 줄을 서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행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토요가족음악회 듣고 '파라오와 미라' 전 보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열린 마당에서 토요가족음악회 공연이 5월 9일, 16일, 23일에 열린다. 9일에는 80, 90년대 가요순위 프로그램이었던 '가요톱텐'에서 영감을 얻어 결성한 리메이크 밴드 '가요톱텐'이 관객을 기다린다. 16일에는 러시아 유학파 첼리스트 송원진과 피아니스트 송세진이 들려주는 '해설 있는 클래식' 공연을 통해 클래식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5일에는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김현철이 노래패 '예쁜 아이들'과 함께 대중음악 콘서트 '김현철과 키즈 팝'을 공연한다.

대강당에선 영화도 상영한다. 5월 9일 상영되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기'는 고대 이집트를 완벽하게 재현한 애니메이션이다.

오는 8월 말까지 계속되는 '파라오와 미라'는 20억원이 넘게 투입된 초대형 특별전시회다. 이 전시회에서는 오스트리아 빈미술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집트 오리엔트 컬렉션 중 대표적인 유물 2백31점이 전시된다. 특히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실물 미라는 이번 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박물관이 운영 중인 '우리 가족은 박물관이 좋아요' (5월 9일 신청 가능)는 어린이가족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관람을 시작으로 체험교육과 공연관람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은하(Silver) 도자교실' 도 운영한다. 5월 8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며, 매주 금요일 4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작품 감상을 비롯, 전통 도자기법



국립중앙박물관 토요가족음악회를 찾은 많은 가족들이 즐겁게 웃고 있다.
국립창극단은 5월 9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창극 '청'을 공연한다(아래).

에 대한 이론 설명과 기초 실기를 실습하며, 작품 완성 과정을 사진과 간단한 글로 기록해 작업일지를 작성해보는 '나만의 스토리 북' 만들기가 함께 진행된다. 전화 접수가 가능하다(www.museum.go.kr 02-2077-9297).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축제와 공연

리모델링공사를 끝내고 재개장한 어린이대공원(서울 광진구 능동)에서는 봄꽃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5월 10일까지 개관공연을 겸해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해놓고 있다. 5월 9일 열리는 어린이 미술대회 참가비는 무료. 올해부터 금상 수상작품은 타일로 제작해 오즈의 나라 놀이터에 설치된 전시벽에 10년 간 전시한 후 수상자 본인에게 기념으로 되돌려줄 예정이다(www.childrenpark.or.kr 02-450-9311).

국립국악관현악단은 5월 10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국악보따리'를 진행하고 있다. 2004년 초연 이후 계속되는 공연으로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는 '어린이 체험 국악공연'이다. 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는 5월 9일까지 국립창극단의 창극 '청'이 공연된다(02-2280-4115).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청소년 주간이다. 올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청소년 주간 주제는 '청소년이여! 대한민국의 행복을 연주하자!'이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드높이고, 사회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활동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함께 청소년 주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 지하철 1~4호선에서 펼치는 지하철 문화공연, 전통성년례가 열리는 성년의 날 행사 등을 펼친다. 지하철 문화공연으로는 패션·미용, 댄스·노래, 연극·영화, 문예·교류 등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과 어려운 청소년 돕기 바자가 함께 운영된다.

올해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년의 날 행사는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성균관 명륜당에서 열린다. 어른의 평상복을 입는 시가례를 시작으로 자(字)를 지어주는 명자례까지 전통 성년의례 의식을 그대로 재현한다. 청소년들에게는 사라져가는 미풍양속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02-2023-8715).

'소나기' 등 3대가 즐기는 뮤지컬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도 눈길을 끈다. 풋풋한



4월 25일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토요가족음악회 '점프' 공연.

첫사랑을 그린 '내 마음의 풍금', 황순원 원작의 '소나기', 연인과 함께 볼 수 있는 '아이 러브 유' 등이다.

'내 마음의 풍금'은 열여섯 살 늦깎이 초등학생 홍연이가 강동수 선생님이 "아가씨" 하고 부른 말 한 마디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으로 동화적인 순수함이 가득하다. 세대를 초월해 관객이 다 같이 웃음 짓고 감동할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 애틋하고 따뜻한 풍금소리를 선사해줄 것이다. 5월 24일까지 호암아트홀(02-501-7888).

'소나기'는 원작과 달리 70년대 순수하고 맑은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는 순박한 시골소년 동석과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씩씩하고 야무진 소녀가 주인공이다. 무대 위로 쏟아지는 소나기와 판타지적 영상 효과는 원작의 빼어난 서정성을 담아낸다. 5월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02-399-1772). 5월 8일 부모님과 자녀 함께 관람하면 30% 할인 혜택도 준다.

로맨틱 뮤지컬 '아이 러브 유'는 로맨스에 관한 모든 단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옴니버스 뮤지컬. 20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9월 13일까지 상상아트홀(02-501-7888).

다문화 체험하는 '우리 안의 세계' 특별전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늘고 있으며,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는 다문화가정도 낯설지 않다.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공존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가정의 생활용품 등을 전시하는 '우리안의 세계' 특별전이 5월 25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다. 10여 개 나라에서 가져온 5백여 점의 다양한 용품들은 각 민족의 특색을 보여주며, 기존의 한국문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도 엿볼 수 있다(02-3704-3114). G

글 · 강선임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청소년과 어린이 경계선, 초등학교 6학년생 설문조사

"엄마, 툭하면 화내서 미안해요"

초등학교 6학년생은 아이와 청소년의 경계에 있는 존재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달인 5월,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자라나고 있는 6학년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어른들이 모르는 그들의 세계, 이제 막 고개를 드는 청소년 심리를 엿보았다.



어린이날을 며칠 앞두고 열린 서울 서교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여러 학년 아이들이 어울려 신나게 주머니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은 휴대전화와 옷, 게임기, MP3플레이어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은 스카프, 손수건, 지갑 등이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돌봐주고 신경 써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성적 때문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한다. 경제와 펀드 때문에 고민하는 '깜찍한' 친구들도 있다.

이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4월 3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교초등학교(교장 류연수) 6학년 6반(담임교사 안보현) 학생 31명(여학생 16명, 남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위클리 공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아이들의 속마음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받고 싶은 선물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큰 고민 △힘이 되어주는 사람 등을 주관식으로 물었다.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중복 응답)은 남녀학생 통틀어 휴대전화(7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게임기(6명), MP3플레이어, 옷, 책(이상 각 4명) 등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휴대전화와 MP3플레이어, 옷, 책이 비슷하게 많은 반면 남학생은 게임기와 운동기구(자전거, 배드민턴 라켓 등)가 많았다. "아무것이나 다 좋다. 그런데 닌텐도를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읍소형' 응답도 있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은 편지와 카드, 스카프, 손수건, 양말 등 아이들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돈 모아서 부모님께 저녁을 사드리고 싶다"는 응답과 "아빠-탈모샴푸, 엄마-호텔 식사권" "아빠-골프채, 엄마-예쁜 옷" 같은 응답도 보였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특별한 선물이나 이벤트를 해줄 때가 아니었다.

"내 편이 돼주시고 힘들 때마다 힘이 돼주실 때" "아침마

다 매일 깨워주실 때" "부모님께서 돈 벌어 저에게 쓰실 때" "시험을 못 봤는데 앞으로 잘하라고 할 때" 등 아이들은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펴주고 격려해줄 때 고마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 "엄마가 야근하느라 집에 없을 때" "부모님이 집에 없을 때"처럼 부모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고마움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답변도 있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중복 응답)은 성적(20명)이었고 다음이 친구(8명)였다. "펀드 시세가 떨어짐. 1백50만원 투자했는데 반 토막 났음" "펀드가 깨졌다ㅠㅠ"는 응답도 있어 펀드 열풍이 초등학생들 사이에도 번졌음을 짐작게 했다.

지금 내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는 부모님, 엄마, 동생 등 가족(19명)이 가장 많았고 친구(16명)가 뒤를 이었다. "글쎄… 누굴까나?" "나 자신" "카페 회원들"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아이들은 가정의 달을 기념해 부모님께 '내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짧게 써달라는 마지막 항목에 아이다운 투정과 사춘기의 고민, 때로는 의젓한 모습까지 비치는 다양한 글을 적었다. 맞춤법이 틀린 글자까지 그대로 옮겨보았다.

"엄마 아빠! 저 민경이에요. 매번 편지를 쓸 때마다 죄송해요. 잘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데, 이제 의젓한 6학년이 되었으니까 저 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 김민경

"아빠 엄마 사랑해♡ 오레오레 사세요." / 김주연

"사랑해요, 엄마 아빠~ 꼭 올해는 제가 효도해드릴께요." / 김혜상

"부모님 이제 술 담배 작작 하시고 건강 좀 챙기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착한 딸 승미 양 올림" / 박승미

"엄마! 이제부터는 싸우지 말고 내가 말할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화내지 말고 내 말에 조금이라도 기울려줘…♥" / 문혜원

"엄마! 내가 많이 소리 지르고 툭하면 화내서 미안해요. 그래도 조금은 이해해주세요. 아빠!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오게 할깨요." / 박원경

아이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내 편이 돼주시고 힘들 때마다 힘이 돼주실 때" "시험을 못 봤는데 앞으로 잘하라고 할 때" 등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펴주고 격려해줄 때 고마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어머니 아버지! 요즘 제가 맨날 대들고 문도 쾅 닫고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만 해서 속이 많이 상하시죠? …제가 요즘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긴 해도 무언가가 고민스럽고 무엇이든 하기가 싫어요. 막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착했었는데 다시 옛날의 수현이로 돌아갈께요…." / 임수현

"언제나 웃음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 김민수

"엄마 아빠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랑해요." / 장현정

"컴퓨터 좀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시켜주세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시켜주세요." / 손찬형

"제가 키우는 동물 때문에 힘드시죠. 이젠 제가 알아서 키울게여." / 정진영

"평소에도,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해요! 평소에는 가족들과 소소하게 느끼는 행복,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함께 느끼고픈 기쁨. 언제나 가족들과 있으면 행복해져요.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길러주셔서서 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언제나 행복하기를!" / 김준기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진지한 표정으로 〈위클리 공감〉 설문지에 답하고 있는 서교초등학교 6학년 6반 학생들.



박방영 / 꽃이 피는 날

아이를 발견한 것은 다섯 번째 PC방에서였다. 마음 한구석이 뚫렸던 아이를 이해하고 뜨겁게 안아주자 아이 또한 여린 제 속을 어쩌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소설가 권지예가 쓴 가족 에세이

혈연의 뜨거움

나는 소설가다. 나는 '여성' 소설가다. 나는 '아줌마' 소설가다. 나는 '엄마' 소설가다.

내 직업은 소설가지만, 나는 한시도 내 앞에 붙은 이러한 수식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소설가 이전에 자연인이자 생활인이기 때문이다. 소설을 쓸 때는 내 정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신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하지만 내 몸은 나를 필요로 하는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인간들의 관계, 즉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특히 자식을 기르는 어미로서 느끼는 희망과 절망의 쌍곡선은 소설보다 더 긴장감이 있다. 나는 가족이란 늘 지겹도록 함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수저통 속의 수저처럼. 게다가 아이들은 베란다의 화분처럼 물만 잘 주면 클 줄 알았다. 딸인 첫애가 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나 칭찬하는 모범생으로 자랐듯이 아들 또한 그대로 자라나리라 생각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무 조짐도 없이 처음으로 사라지기 전까지는.

학원에 갔다가 돌아와야 할 아들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니 버스를 타고 지금 집으로 오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가 오지 않아서 게임방에 들렀다 오나보다 했다. 언제부턴가 공부에 흥미를 잃은 아이는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했다. 말이 프로게이머지 사실 공부하기 싫은 핑계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릴 땐 과학영재인 줄 알았다. 기계나 컴퓨터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또 잘 다뤘다. 하지만 아이는 조직이나 권위에는 생래적인 거부감이 있어 학교생활을 싫어했다. 혼자서 뭔가를 조립하거나 게임하는 걸 아주 좋아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성적은 더욱 떨어지고 말수도 줄고 비밀이 많아졌다. 나는 결국 아이의 꿈을 받아들이고 프로게이머의 꿈을 밀어주기로 약속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집으로 오겠다는 아이의 휴대전화는 자정 넘어서부터는 아예 꺼져 있었다. 세상이 흉흉한 탓에 끔찍한 상상이 연달아 펼쳐졌다. 작가인 나의 상상력 과잉은 가히 병적이었다. 고통스런 긴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내 머리를 계속 맴도는 것은,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하던 말이었다. "난 엄마가 보통 엄마였음 좋겠어." 한때는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두고 지방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아이를 남에게 맡긴 적도 있었으며, 바쁘게 소설 쓰느라 며칠씩 작업실에 틀어박혀 지내기도 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전화해서 부랴부랴 가보면,

아이는 하루 종일 나가지도 않고 홀로 소파에 누워 만화방송을 보거나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 밤, 생각해보니 아이는 내게 외롭다는 말을 그렇게 해온 것이다. 그걸 난 미처 못 알아들었던 것이거나 외면해온 것이다. 내가 이 밤, 이렇게 아이를 기다리듯 내 아이도 이렇게 간절하게 엄마를 기다려왔겠구나…. 아이는 엄마가 늘 넉넉하게 품을 벌리고 자기를 기다려주는 집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보통 엄마처럼…. 난 소설가로 이름을 얻고 살아왔지만, 보통도 안 되는 엄마였던 것이다. 가슴이 아팠다.

아침이 되자 아이에게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왔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가끔 연락할게요…."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버텼는데 갑자기 눈물이 솟구쳐 올라왔다.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소설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인가, 참담한 자괴감이 들었다. 아이를 찾기 위해 학교와 친구들, 아이의 미니홈피를 추적하면서 나는 아이가 내가 알던 내 아들과 너무 낯설다는 충격으로 또 한 번 무너졌다. 저녁때부터 아이의 사진을 확대 복사해서 인근 PC방과 찜질방을 뒤지기로 했다. '누가 이 소년을 모르시나요' 사진을 들이밀며 눈물을 꾹 삼켰다.



일러스트 · 조은명

아이를 발견한 것은 다섯 번째 PC방에서였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아이를 보자 멍해진 것은 오히려 나였다.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마음을 연 대화를 시도했다. 마음 한구석이 뚫렸던 아이를 이해하고 뜨겁게 안아주자 아이 또한 여린 제 속을 어쩌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아이는 집을 나가 친구 집에서 잤다고 했다. 친구는 혼자 산다고 했다. 가난한 친구의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숙식 제공을 받는 식당에서 일을 하느라 집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들른다고 했다. 그 친구아이의 외로움과 고단함도 가슴 아팠다. 그 애도 밤마다 엄마를 기다리며 잠들겠구나.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 몸을 쉴 따뜻한 집이 있고, 이 세상에서 내 몸만큼 너를 사랑하는 엄마와 가족이 있어. 우리는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린 가족이고 운명공동체거든."

그러나 체질적으로 조직을 싫어하면서도 자유분방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틀에 박힌 학교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세상과 소통하며 저를 실험해보고 싶어 한다. 그것이 학교생활과 갈등을 일으키곤 한다. 그래도 나는 아이와 약속한 대로 믿고 기다리며 지켜주려고 한다. 아이도 이제는 그것을 안다. 어차피 겪어야 할 방황이라면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대범하게 생각해본다. 아무리 세상을 방황해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한, 아이는 비록 방황은 하더라도 방탕하지는 않으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자식을 가진 모든 가정이, 가족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지지 않을까. 어려운 경제 탓에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아이들을 포기하면 사춘기 아이들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을 잃는다. 그리고 사회는 꿈나무들을 잃는다. 우리는 결국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

바람과 햇볕의 동화가 생각난다. 바람이 억지로 옷을 벗기려면 더욱 꽁꽁 여미게 되지만 햇볕은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든다. 스스로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것은 따스한 집이다. 아니, 그 안에 깃든 햇볕 같은 사랑이다. 집이란 가족들의 온기가 흐르는 곳이다. 결국 인간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피를 나눈 가족이란 혈연의 뜨거움이 아닐지. G

권지예는 제26회 이상문학상, 제36회 동인문학상을 받았으며 장편소설 〈아름다운 지옥〉 〈붉은 비단보〉, 소설집 〈꿈꾸는 마리오네뜨〉 〈폭소〉 등을 펴냈다.

독도지킴이 故 김도건 군 부모 장학금 1억원 기부

"내 아들 못 다한 꿈, 후배들이 이뤄주세요"



지난 2월 독도 알리기 행사에 참여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도건 군의 부모가 아들의 모교에 1억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아들 도건이가 못 다한 바다와 선박설계에 대한 꿈을 후배들이 꼭 이뤄주면 좋겠다"는 김청수 양금옥 부부를 경남 마산에서 만났다.

"나름대로 우리 애 열심히 키웠는데… 먼저 가버리니 허망하지요. 작별 인사도 못 나누고…. 그렇게 갔어요."

4월 30일 오후 경남 마산시 외곽의 한 공원에서 만난 고 김도건(20 ·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군의 아버지 김청수(52) 씨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눈물을 참고 있었다.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던 아내 양금옥(46)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도건이는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잘하면 뭐하겠습니까. 가버렸는데…."

기자가 건네는 명함을 김 씨가 의자에 앉아 그대로 받았다. 그러자 양 씨는 "일어나서 받아요" 하고 남편을 나무랐다. 이들 부부의 말투에서도, 작은 몸동작 하나에서도 소탈함과 순수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식사를 겸한 2시간 동안의 인터뷰 내내 그랬다.

서울대 동아리 '독도 레이서'에서 활동하던 김 군이 유명을 달리한 것은 지난 2월 23일 밤. 그날 김 군은 경북 영덕군의 한 국도에서 트럭에 치여 숨졌다. 독도 레이서와 방송사 등이 독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동 기획한 '독도가 달린다' 행사에 참여하던 중에 벌어진 사고였다. 서울에서 포항까지 3백50킬로미터는 자전거와 이어달리기로, 포항에서 독도까지는 배편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됐는데, 김 군은 육로 목표지점인 포항을 30킬로미터 정도 앞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안타깝게 하늘로 갔지만 아들 뜻 전하고 싶어

"밤늦게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도건이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사고 장면이 담긴 화면도 봤습니다. 내 아이의 일이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영안실에 도건이 친구들이 잇따라 도착해 고개를 떨궜습니



김청수(오른쪽) 양금옥 부부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잃었지만 대신 독도 레이서 회원 6명을 자식으로 얻었다"고 말했다.

다.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되레 마음의 짐을 지운 것 같아서였습니다."

양 씨는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온몸이 떨린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최근 사고를 낸 트럭기사와 형사 합의를 했다. 김 씨는 "이런 일로 남 힘들게 해서는 안 되고, 나만 잘 살겠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며 "그래서 좋게 마무리하고 모두 끝냈다"고 말했다. 합의금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아들의 모교인 서울대와 마산 중앙고에 모두 1억원을 기부했다. 도건 군의 보험금에서 떼어낸 것이다. 4월 중순 마산 중앙고에 기탁한 5천만원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쓰인다. 최근 서울대에 낸 5천만원은 '김도건 장학금'으로 적립된다. 여기에서 조선해양공학과 재학생 2명에게 매학기 장학금이 주어진다. 양 씨는 "아들을 대신해 후배들이 바다와 선박설계에 대한 꿈들을 키워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던 김 군의 뜻을 후배들이 기억하면서 오래오래 기릴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은 학업 성적은 물론 눈썰미가 남다르고 손재주도 뛰어났다.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장난감 조립에 소질을 보였다. 마산에서 자란 때문인지 바다와 선박에 관심이 많아 결국 선박설계사를 염두에 두고 진학했다. 평소 부모님께 "배를 만들어 선물할지도 모른다"는 농담도 건넸다. 양 씨는 "도건이가 평소 자신감도 많았지만 의지가 강해 한번 마음먹으면 꼭 해내는 성격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의 모교인 서울대와 마산 중앙고에 모두 1억원을 기부했다. 4월 중순 중앙고에 기탁한 5천만원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쓰이고 최근 서울대에 낸 5천만원은 '김도건 장학금'으로 적립된다.

형편 좋아지면 도건이 기념사업하고 싶어요

고향인 마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에 일용직으로 입사한 아버지 김 씨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마산에서 직장을 다니던 부인을 만나 결혼했다. 김 씨는 현재 두산중공업 환경안전부에 소속돼 오염물질 유출 등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 양 씨는 15년 전부터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한다. 벌이가 많지 않아 살림살이는 빠듯하다. 마산시 회성동 80평방미터짜리 빌라가 재산의 전부다. 그래도 김 씨 가족은 행복했다. 국립대 사범대를 다니는 도건이 누나는 내년에 졸업을 한다.

김 씨는 "올해만 지나면 고생이 끝나고 생활이 좀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양 씨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지만 대신 6명의 자식(독도 레이서 동아리 회원)을 새로 얻었다"며 "그들이 아들 딸 역할을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자주 연락을 해온다"고 말했다.

동아리 리더인 한상엽(25·중어중문학과) 군 등이 보낸 편지에는 "도건이가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평생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일찍 떠날 줄 알았다면 정들기 전에 '웃지 말라'고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시간 될 때마다 도건이를 가슴에 품고 찾아 뵙겠습니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양 씨는 "도건이와 비슷하게 생긴 청년이 지나가면 아들로 착각하기 일쑤"라며 "형편이 좋아지면 도건이를 위한 기념사업이라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버지 김 씨도 한마디 덧붙였다.

"세상에 태어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도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다 떠났습니다."

구김살 없고 적극적이며 명석했던 스무 살 청년 김도건 군은 독도를 밝히는 별이 되었다. G

글과 사진 · 강정훈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한상엽 '독도 레이서' 동아리 회장

"도건이의 꿈과 열정 이어받아 '독도는 우리 땅' 널리 알리겠습니다"

고 김도건 군이 속해 있던 '독도 레이서'는 2006년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며 모터사이클 세계횡단에 성공한 '독도 라이더'의 후신 동아리다. 서울대 기초교육원 도전동아리 소속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동아리 리더인 한상엽 군을 만났다.

김도건 군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동아리 회원들 중 가장 긍정적 사고를 지닌, 밝고 명랑한 친구였습니다. 회원들이 지쳐 있을 때면 짧은 농담으로도 웃음을 주는 활력소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용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고, 성적도 뛰어나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엄친아' 같은 후배였습니다.

도건 군이 사망했을 당시 심경은 어땠습니까.

동고동락하던 친구를 잃은 슬픔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도건이를 위해서라도 목표한 레이스를 끝마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도건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독도에 들어간 그날 아침은 환희와 아쉬움이 함께했습니다.

동아리의 향후 활동 계획은.

도건이의 꿈과 열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독도 레이서는 오는 8월 15일부터 약 1년여 동안 미주, 유럽, 아프리카를 차례로 돌며 '독도가 달린다-세계편'을 진행하고, 주요 도시 광장에서 풍물놀이 공연을 펼쳐 우리 문화를 알릴 계획입니다. 글 · 김지영 기자



'독도 레이서'의 웃음 전도사였던 고 김도건 군(왼쪽에서 세 번째).



세계가 격찬한 '난타' 기획자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는 청소년과 소외계층의 문화소양을 높이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난타와 함께하는 체험교실' 기획자 송승환

두두두둥~ "세계인의 가슴 두드려요"

성공한 공연기획자에게 사회공헌 활동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난타'로 세계인들의 가슴을 두드린 공연기획자 송승환씨는 "문화적 소양이 경쟁력인 시대에 젊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찾고 열정을 쏟을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난타' 기획자로 유명한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52)는 최근 문화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4월 24일 서울 청담동 난타전용극장에서 열린 '난타와 함께하는 체험교실'에서 진행을 맡은 송승환씨는 객석을 향해 난타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에서 소외돼온 학생들을 위해 운영 중인 문화예술인 명예교사제 행사의 하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후원하고 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칼로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를 좋아했던 추억이 있어요. '다다다다다다' 소리도 경쾌하지만, 그 소리가 나는 날은 저녁 반찬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송 대표의 이야기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중학교와 청소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년 쉼터에서 온 3백여 명의 학생들로 가득한 객석이 웃음바다가 됐다. 무대 가장 가까운 쪽에 앉은 서울농학교 학생들 20명도 인솔교사의 수화와 송 대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물통을 두드리면 북소리가 나고, 쟁반을 두드리면 징소리가 나고, 작은 냄비를 두드리면 꽹과리 같은 소리가 날 수 있고… 한 시간 반가량 두들기기만 한다면 지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있고…."

'난타' 공연에 앞서 송 대표가 풀어놓는 자유로운 창작 정신, 일상의 사물 속에서 사물놀이의 소리를 찾는 과정은 그대로 어린 학생들에게 문화와의 접점이자 창의교육이 됐다.

난타, 전세계 4백만명 관객 동원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에 매달리느라고 오히려 저희 때보다 문화경험을 더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문화를 접하고, 그것을 계기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고, 그 일을 찾았다면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정열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송 대표의 각별한 관심은 1964년 아홉 살 어린 나이에 KBS 아역 성우로 데뷔한 자신의 이력과도 맞닿아 있다. 성우를 거쳐 탤런트 생활을 하면서 보성중학교와 휘문고등학교를 나와 한국외국어대에 입학한 송 대표는 신입생 시절 연극의 매력에 빠져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극단 '76극장'에 입단했다. 연극 '에쿠우스'로 백상 연기상을 수상하고 인기 절정이던 1985년, 그는 돌연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왜 떠났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보다 더욱 많은 공연이 열리는 미국 뉴욕과 영국에서 연극을 마음껏 보기 위해서"라고 답한 송 대표는 노점에서 싸구려 시계를 팔아가며 보고 싶은 연극 티켓 값을 벌었다고 한다.

연기에 대한 송 대표의 열정은 공연기획자가 되겠다는 꿈으로 이어졌다. 열악한 국내 공연시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해외시장을 노린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언어적인 장벽은 당시 유행하던 '비언어적 공연(Non-verbal Performance)'의 도입으로 해결됐다.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소재로는 사물놀이의 리듬을 택했고, 그 배경으로는 두드릴 만한 것이 가장 많은 일상의 공간인 주방을 생각하게 됐다.

1997년 10월 10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난타'가 초연됐고, 비언어극에 유명배우 한 명 없는 이 실험적인 공연은 연극 팬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개막 2주가 지나자 연일 매진을 기록했다. '난타'는 1999년 세계적인 연극제인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출품돼 최고의 평점을 받았다. 이후 '난타'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4백만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았다.



객석의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문화체험을 들려주는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

"제가 '난타'를 만들고, 공연기획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문화를 가까이 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뉴욕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접한 영향이 컸습니다."

문화의 힘을 몸소 체험한 그가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PMC프로덕션은 2007년부터 '사랑의 좌석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 등 사회봉사단체와 손잡고 소외계층 등에게 '난타' 등 PMC프로덕션의 공연을 보여주는 활동이다. 2007년 2월에는 경기 포천시의 요청으로 포천시 상계마을을 찾아 마을 주민들과 인근 군부대 장병들에게 무료로 '난타'를 공연하기도 했다.

> **"공연에서는 수익뿐 아니라 공공기능도 중요합니다. 찾아가는 공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공연 활동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공연에서는 수익뿐 아니라 공공기능도 중요합니다. 찾아가는 공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공연 활동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제주시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 문을 연 난타전용극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공연장에 책 한 권을 기증하면 4만원인 관람료를 1만5천원으로 할인해준다. 이렇게 모인 책은 지역 내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에 기증된다. 제주뿐 아니라 서울 정동과 청담동의 난타전용극장에서도 전국 중고교의 신청을 받으면 대폭 할인된 가격에 공연을 보여주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송 대표는 바쁜 일정임에도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난타와 함께하는 체험교실'에 자신이 직접 반드시 참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학창시절의 많은 경험은 정말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겪어보는 것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청소년 시기에 정말 좋은 교육이자 살아 있는 교육입니다. 저도 여력이 되는 한 아이들에게 좋은 선험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G

글 · 남창희 객원기자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홍보대사 탤런트 김유현

"최첨단 농촌,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정보화마을 사업은 경쟁력 있는 선진국형 농어촌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촌에서도 인터넷을 손쉽게 쓸 수 있고 다양한 정보콘텐츠가 쌓여 도시와 농촌의 정보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보화마을은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소득증대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사진은 홍보대사 김유현씨가 특산물 판매에 나선 모습.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인 탤런트 김유현입니다. 그동안 저는 드라마 '천하일색 박정금' '돌아온 일지매' 등을 통해 연기자로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 홍보대사로 여러분께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의 홍보대사 활동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농어촌의 발전모델인 정보화마을의 친근한 이미지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보화마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정보화마을은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선진국형 농어촌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답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관련 사업을 통해 정보생활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사업에 힘을 쏟아왔는데요, 그 결과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3백68개의 정보화마을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답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컴퓨터와 초고속 인터넷망을 공급하고 마을정보센터를 만들어 정보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있지요. 그리고 마을 소개나 관광지, 특산물,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고, 대표사이트나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기도 합니다. 정보화 지도자를 육성해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마을운영위원회를 꾸려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화마을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 가정마다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갖추어 인터넷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을정보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받거나 마을회

의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행정에 참여해 지역공동체의식도 강해집니다.

전자상거래로 특산물 및 체험상품을 판매해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만들어 갈 수도 있죠. 정보화마을을 주민들만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민들도 정보화마을 사이트를 통해 멀리 떨어진 고향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죠. 거기다 가족들과 정보화마을로 특별한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답니다.

인빌체험 캘린더 서비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정보화마을은 영어로 'Information Network Village', 줄여서 인빌(Invil)이라고 부르는데요, 인빌은 전국 3백58개 정보화마을의 마을 홈페이지를 연결하고 인빌뉴스, 정보채널, 인빌쇼핑, 인빌체험, 커뮤니티 등의 콘텐츠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인 인빌쇼핑을 통해 도시민들은 좀 더 손쉽게 지역 특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제철 상품, 출하시기별 상품, 테마별 상품들을 신선한 상태로 안방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9백여 개의 인빌체험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구분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체험정보를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인빌체험 캘린더를 통해 신토불이 과일 수확, 일일 농부체험, 자연생태 탐험대, 손맛 체험, 바다생물 체험, 농촌공작실, 옛날옛적놀이 등 13개의 테마별 체험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테마의 체험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인빌체험 캘린더에는 '캘린더 가져가기' 기능도 있어 개인 블로그나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카페, 미니홈피 등에 담아두면 언제든 최신 체험정보 검색이 가능하죠. 거기다 체험 상세정보 제공과 상품 예약까지 한자리에서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돼 인빌체험 캘린더를 통해 상품 선택과 예약,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을 이름을 클릭하면 마을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을정보 확인에도 편리하고요.

인빌체험 캘린더는 매월 새로운 체험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한번 내려받기를

> **"정보화마을 인빌체험은 마을별 특성에 맞게 개발된 체험프로그램인데요, 어른들에게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이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함께 배우고 즐기는 살아 있는 체험학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인빌체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정보화마을 인빌체험은 마을별 특성에 맞게 개발된 체험프로그램인데요, 어른들에게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이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함께 배우고 즐기는 살아 있는 체험학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인빌체험은 전문가가 철저하게 사전조사와 실사를 벌여 특별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놓았답니다, 정보화마을은 4월부터 '인빌체험 캘린더' 서비스를 실시해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돕고 있다네요.

인빌체험 캘린더 서비스는 전국 9개 권역(경기, 강원, 충

해놓으시면 손 댈 필요가 없습니다. 4월에 '딸기 따기 체험전'을 시범 오픈한 데 이어 5월에는 '갯벌체험전'을 테마로 싣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기 안산시 대부도마을, 전북 하전 갯벌마을, 충남 태안 볏가리마을 등 전국 각지에서 풍성한 갯벌체험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 여러분도 체험해보지 않으실래요? 인빌체험 캘린더는 대표사이트인 정보화마을이나 인빌체험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도시와 농촌의 행복을 함께 키우는 정보화마을 사업처럼 저 김유현도 연기를 통해 행복을 전하는 연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정보화마을을 홍보대사로서 농어촌 발전과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정보화마을 www.invil.org 인빌체험 tour.invil.com

동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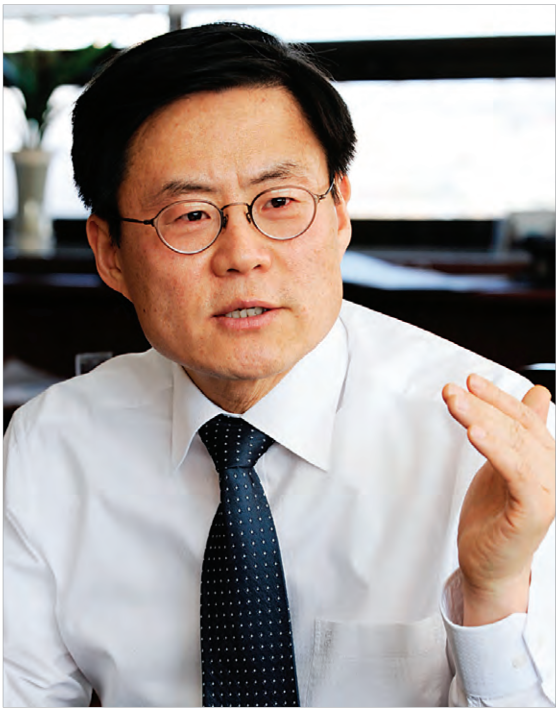
강원 화천군 상서면 토고미마을 비닐하우스에서 도시 어린이들이 농작물을 심어보고 있다.



버섯 세계화 나선 김재수 농촌진흥청장

"농업은 그 자체가 녹색산업"

5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한국 버섯, 세계인 식탁으로'라는 주제의 버섯 품평회와 심포지엄이 열린다. 농촌진흥청이 버섯의 국내소비 확대와 수출 증대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하는 이색 행사다.



"농업은 그 자체가 녹색산업입니다. 국토 면적 중 농지 비율이 18퍼센트나 되지만 온실가스는 2.5퍼센트만 배출합니다. 말 그대로 친환경산업이지요."

김재수(52)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정책인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개발전략을 연계해 농식품산업을 국가 녹색성장을 이끌 주요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 녹색기술개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국 버섯, 세계인 식탁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버섯 품평회와 심포지엄 역시 이 계획 중 하나다.

버섯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연간 19만톤을 생산하는 국내 버섯의 시장 규모는 1조원대로 농림업의 2퍼센트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요보다 공급이 늘면서 팽이버섯 등 주요 버섯은 오히려 과잉생산되고 있습니다. 내수만으로는 생산량을 소화하기에 버거운 상태가 된 것이죠. 다행히 새송이, 팽이버섯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버섯인의 마음을 한곳에 모아 내수의 한계를 수출로 극복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행사를 열게 됐습니다.

소득 증대를 위해 보급하고 있는 작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밥맛이 가장 좋은 쌀 품종을 골라 엄격한 재배기술로 생산하는 '탑라이스(Top Rice)' 사업과 최고 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탑프루트(Top Fruit)' 사업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콩과 밀, 조 등을 재배하는 '웰빙잡곡 프로젝트' 사업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표 작목으로 인삼의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생활공감형 녹색기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농업과 농촌이 지닌 가치를 국민생활과 연결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주와 녹차한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천연염색과 전래 공예품 등을 통해 농촌자원을 소득으로 연결시키고, 주말농장과 농업체험학교 등을 통해 지역 농업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농민과 농촌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농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립형 복지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가 주도하는 민간자율 운동으로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생활여건의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농촌의 고령화 대책으로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는 등 농촌생활 활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폐농기계와 폐농자재 수거 지원 등을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마을을 전 국민의 휴양공간과 생활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G

글 · 구자홍 기자

창업에서 성공까지 단계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

내 몸집 줄이고 中企지원은 배로 늘리고

기술보증기금의 선진화 사례는 정부 안팎에서 공기업 선진화의 모범으로 꼽힌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예산을 줄였는데도 기업혁신 보증은 크게 늘린 비결은 무엇일까.

지난 4월 1일 기술보증기금 창립 20주년을 맞은 직원 가족들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경기침체를 막아내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장들이 매일 늦게 퇴근하고 때로는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가장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공명정대한 업무처리와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따뜻한 내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보증기금 진병화 이사장 명의의 편지였다. 편지봉투에는 문화상품권 2만원이 동봉돼 있었다. 모처럼 가족들이 영화라도 한 편 보라는 격려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를 통해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곳이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집행하느라 밤늦게 휴일도 잊은 채 일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그동안 경영혁신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의 모범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기술보증기금이 추진해온 경영혁신의 추진방안은 크게 두 가지.

첫째,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올해 예산의 15퍼센트를 절감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10퍼센트를 훨씬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 기술



기술보증기금은 핵심 사업부서 개편을 통해 기업이 창업에서부터 성장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영혁신 노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보증기금의 전체 임직원들이 다함께 고통분담에 동참했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납하고, 대졸 초임을 인하했고, 특별휴가 폐지 등 휴가 제도를 개선했다. 연봉을 조정하고 업적성과급 차등폭을 확대했으며 작지만 강한 고객지향형 조직으로 바꿔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또한 본부 조직과 인력 10퍼센트 이상을 영업점 현장인력으로 재배치했다.

둘째, 핵심역량 위주로 사업을 새로 짰다. 창업에서부터 성장 단계별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은 사업을 재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매 시기 지속적인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황철호 홍보실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보증분을 집중했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위주로 기술평가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창업보증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증비율·한도 높여 우수기업 특별관리

이 같은 경영혁신 노력은 기술력을 갖고서도 세계적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기술혁신보증의 경우 3월까지 지원한 보증금액이 4조9백35억원에 이를 정도로 획기적이다. 이 같은 실적은 2008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다. 이밖에 기술평가보증과 기술창업기업 지원 금액도 각각 3조8천3백88억원과 1조4천4백31억원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은 경제위기 극복 이후를 대비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기업과 벤처창업기업, 수출기업, 우수기술기업 등을 신규핵심분야로 선정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보증비율도 이전에 95퍼센트였던 것을 1백퍼센트로 늘렸고,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부실 보증을 피하기 위해 기술평가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술평가 피드백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평가와 현재 평가 진행 건을 비교함으로써 평가자가 자신의 평가 성향과 일관성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2월부터 신청 기업의 기술평가 등급을 문자메시지로 즉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성 사전 평가와 기술평가 사이버감사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기술평가제도 개선 뿐 아니라 기술평가서의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기술시장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관기업의 업종별 리포트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G

글 · 구자홍 기자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지원과정 중 부실 내가 책임지겠다”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기금이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입니다.”

2008년 9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취임한 진병화 이사장은 취임 이후 ‘전략경영 마인드’ 확산에 주력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진 이사장은 “기술혁신기업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존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저탄소녹색성장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지원 분야를 확대하겠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보증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은 이사장이 책임지겠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위기 대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도 진 이사장은 솔선수범했다. 기술보증기금 내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일선 영업점 및 유관기관들과 비상체계를 구축했고, 현장기동반을 편성해 매주 2, 3회씩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진병화 이사장은 행정고시 13회로 재무부 과장과 재정경제원 금융제도담당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지냈다. 유럽개발은행 이사와 국제금융센터 소장을 거쳐 2008년 9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최첨단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개발 추진

대덕특구, 자전거산업 부활 이끈다

최근까지 붕괴 위기에 놓였던 자전거산업이 재도약을 준비 중이다. 한국 과학의 1번지 대덕특구에 자전거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 특구지원본부는 산학연과 함께 자전거 연구 및 생산 기반을 마련해 대덕특구를 전국 단위의 자전거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자전거산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붕괴됐지만 정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 새로운 질주를 꿈꾸고 있다.

자전거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떠올랐다. 자전거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데다 탄소연료 없이도 수백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유가시대를 맞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출족'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삶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자전거를 참살이(웰빙)나 여가활용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자전거 수요의 확대에 비해 국내 자전거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특히 자전거 생산을 위한 제조 기반이 1990년대 말 이후 급속히 붕괴돼 연간 2백만 대에 이르는 국내 자전거 수요는 거의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국내시장 점유율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자전거 메이저 4개사가 국내 생산공장을 모두 해외로 이전한 탓이 크다. 이 회사들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밀려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생산시설을 모두 중국으로 옮겼다. 자전거산업이 후진국형 모델이라는 그릇된 인식도 이를 부추겼다.

자전거산업은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자전거시장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세계적인 장기불황에도 성장세를 멈춘 적이 없다. 오히려 경기침체기에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이 강점이다. 정부가 자전

거산업을 되살리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그동안 범국민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여러 측면으로 모색해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내에 자전거 생산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자칫 수입자전거 타기 활성화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전거 이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대덕특구 자전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전거 연구 및 생산 기반을 마련해 대덕특구를 전국 단위의 자전거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공공자전거와 자전거 핵심 부품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현재 국내에는 자체 개발한 부품으로 자전거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무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생산설비를 갖추고 핵심부품 생산과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써온 20여 개 기업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이들 기업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국내 자전거 생산 기반 복원과 경쟁력 있는 자전거 개발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대덕특구가 보유한 원천기술과 첨단기술까지 더해지면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의 세계적 표준모델도 개발할 수 있다. 아울러 질적으로 우수한 자전거와 핵심부품을 생산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일도 시간문제다.

한국자전거연구조합 결성, 상생 협력모델 구현

이 사업을 주도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전문 클러스터사업(산학연이 협력하도록 지원해 연구 성과 및 보유기술의 조기 산업화와 시장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 2년간 40억원을 지원해 자전거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1단계는 대덕특구의 기술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연구기반 구축에, 2단계는 자전거 사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시장진입에 대해 지원한다.

자전거산업 협력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한국자전거연구조합도 결성됐다. 한국자전거연구조합은 전국에 산재한 자전거 제조 관련 업체(부품 및 용품)와 연구지원기관(원천기술, 평가테스트),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이 상호 연관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조직이다. 특구지원본부의 지원과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의지로 만들어진 한국자전거연구조합은 지난해 9월 23일 창립총회를 갖고 같은 해 11월 2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앞으로 연구지원기관(체육과학연구원, 기계연구원, 화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학교(KAIST, 한밭대 등), 기업체가 협력사업을 통해 공동연구개발 수행과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등 상생협력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한데 모아 세계시장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지닌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연구개발과 공동생산도 추진해나간다.





대덕특구지원본부는 국내 자전거 관련 업체들의 역량과 대덕특구의 첨단 기술력을 결집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자전거와 부품 생산에 나선다.

자전거 관련 업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은 무엇보다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과 유통, 새로운 시장 개척,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자전거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군 대개가 그렇듯 기술수명주기가 갈수록 짧아져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산업은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 시장은 경기침체기에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이 강점이다. 정부가 자전거산업을 되살리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덕특구는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을 활용해 △경량신소재 생산기술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공공자전거 표준모델 △전기자전거용 핵심부품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연구 생산 기반이 확충되면 1년 안에 자전거 생산이 가능하므로 국내외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공공자전거와 핵심부품을 수출해 국가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특구지원본부 강계두 이사장은 "자전거산업은 금속·소재, 부품·기계, 고무·화학, 신발·의류, 정보통신, 금융·보험, 태양에너지, 관광·여행, 렌탈·정비 등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상호 연계를 통해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덕특구에 자전거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음료 · 주류 생산 17개 업체 자발적 동참

페트병 재활용 쉽게 같은 재질로 통일

알록달록한 페트병을 앞으로는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환경을 생각해 페트병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과 색상을 반영하기로 음료 및 주류 대표업체들이 결의했기 때문이다.

#1 경기 김포시의 한 공장. 작업대 위에 페트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작업자들이 색상이나 재질별로 페트병을 분류한 후 파쇄기에 넣는다. 페트병은 직경 10밀리미터 내외의 균일한 입자로 분쇄된 후 세척조에 들어가게 된다. 한참 세척조를 돌리던 근무자 김 씨가 소리를 질렀다. "중지! 메시(Mesh)가 막혔다!" 작업을 중지한 김 씨는 손으로 배수구멍에 낀 불어버린 종이찌꺼기를 일일이 걷어냈다. 김 씨는 "플라스틱 재질의 라벨은 물 위에 뜨므로 걷어내면 되는데 종이 라벨은 분리가 불가능해 세척하기 전에 일일이 골라내야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앞으로는 재활용 사업자의 이러한 불만이 줄어들 전망이다. 맥주를 담는 갈색 페트병, 음료를 담는 녹색 페트병, 투명 페트병, 다양한 색상과 재질의 라벨과 마개…. 소비자의 기호와 기업 마케팅 차원에서 제각각으로 제조됐던 페트병이 이젠 단일 재질로 생산되고 라벨이나 마개 사용에도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6일 환경부와 롯데칠성음료, 진로, 오비맥주 등 음료와 주류를 생산하는 17개 업체는 '페트병 재질 · 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자율적 실천을 결의했다. 지난해 12월 환



다양한 색상과 재질의 페트병들은 재활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관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페트병.

경부가 마련한 '페트병 재질·구조 개선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과도한 컬러와 복합 재질, 금속 마개 사용 등 재활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돼온 페트병의 재질과 구조에 제한을 두자는 것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페트병을 설계해 재활용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공정효율·품질 '두 마리 토끼' 한번에

현재 페트병 재활용 공정을 살펴보면 각 가정이나 대형 건물, 아파트 등에서 수거된 페트병은 압축되어 재활용 사업자에게 팔린다. 재활용 사업자는 페트병을 색상에 따라 무색단일재질(투명), 유색단일재질(녹색), 복합재질(갈색) 등 세 가지로 분류한 뒤 분쇄 과정을 거쳐 약품으로 세척한다. 세척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병마개나 라벨 등은 비중 차에 의해 분리된다. 페트 재질은 수중으로 가라앉고 플라스틱 재질의 병마개나 라벨은 비중이 1보다 작아서 뜨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척 및 탈수 공정을 반복하면 재생섬유의 원료로 쓰이는 플레이크(Flake)가 완성된다.





페트병 재질 개선에 나선 생산업체 대표들(위). 페트병을 분쇄해 만든 플레이크.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색상의 페트병과 색상, 재질 선별이 어려운 페트병, 금속 병마개나 라벨 등은 재활용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재활용 물질인 플레이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으로 지목돼왔다.

사단법인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의 김경희 씨는 "페트병 몸체에 부착된 종이 라벨은 세척조의 배수구망을 막아 수시로 세척조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몸체에 잉크를 사용해 직접 인쇄한 페트병은 잉크 때문에 플레이크의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속 마개는 분쇄기에 투입하기 전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거해야 해 공정 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2010년 7월부터는 단일 재질의 페트병은 무색, 스카이블루, 녹색만을, 복합재질은 갈색만을 생산키로 했다. 또 종이 라벨, 비수용성 스티커 라벨 등은 2011년 7월부터 사용을 중단하고 직접 인쇄도 금지하며, 금속 마개나 마개와 분리되는 실리콘 고무 등 재활용 과정을 까다롭게 하는 기타 부착물 등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재질·구조 개선 협약이 지켜지면 재활용 분담금이 70억원 정도로 줄어 국가와 기업, 재활용사업자 간의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박한업 서기관은 "이번 협약을 지키려면 기업들도 기존 설비를 변경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대의에 따라 기업 쪽에서도 불편을 일부 감수하고 가이드라인을 적극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협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기업들이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연간 1백80억원 정도의 재활용 분담금이 70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박 서기관은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와 기업, 재활용사업자 간의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협약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페트병 재질·구조 개선 가이드 라인'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포장재(용기)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제품 출시 전에 포장재 재질과 구조의 재활용 적합성 등을 사전 평가함으로써 제품의 생산 제조단계부터 원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G

글·정지연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일반음식점도 노래방 기기, 작은 떡집에도 가공용 쌀

규제완화로 소상공인 177만곳 혜택

소규모 떡집이나 일반음식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대폭 풀린다.
소상공인을 위한 이 조치로 업소 1백77만 곳이 혜택을 받고, 3천47억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동아DB

떡집, 목욕탕 등 소상공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들이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 소규모 떡집(16.5~33평방미터)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년 내지 2년으로 축소된다. 회갑연, 칠순연 때 일반음식점에서도 노래방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도·소매점의 빈병 회수료는 현실에 맞게 인상된다. 영·유아용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13개 소관부처가 나서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음식점, 목욕탕, 떡집, 소매점 등 약 1백77만 개 업소가 직접 혜택을 보며, 이에 따라 약 3천47억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형 떡집 등이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을 완화하면 5천4백여 개 업소가 수혜대상이 되어 7백40억원의 쌀 구입비를 줄일 수 있다. 또 참기름, 두부 등 즉석식품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위해항목' 위주로 개편하게 되면 7만2천 개 업소가 총 52억원 정도의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매점의 재활용 공병수거 취급 수수료를 현실화하면 58만4천 개 업소가 총 2백억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주유소의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기준의 합리적 개선(2백57개 업소·45억원),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 단축(8천8백52개 업소·2백65억원), 영·유아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기준 완화(1만1천4백47개·1천3백70억원) 등도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적지 않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매출 감소,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어 왔으나 그간 소상공인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왔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청은 작은 규제들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1월부터 음식업중앙회, 슈퍼마켓조합 등 41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을 통해 현장 위주로 '작지만 중요한 규제'들을 발굴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보고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조해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G

글·박경아 기자

주요 영업규제 개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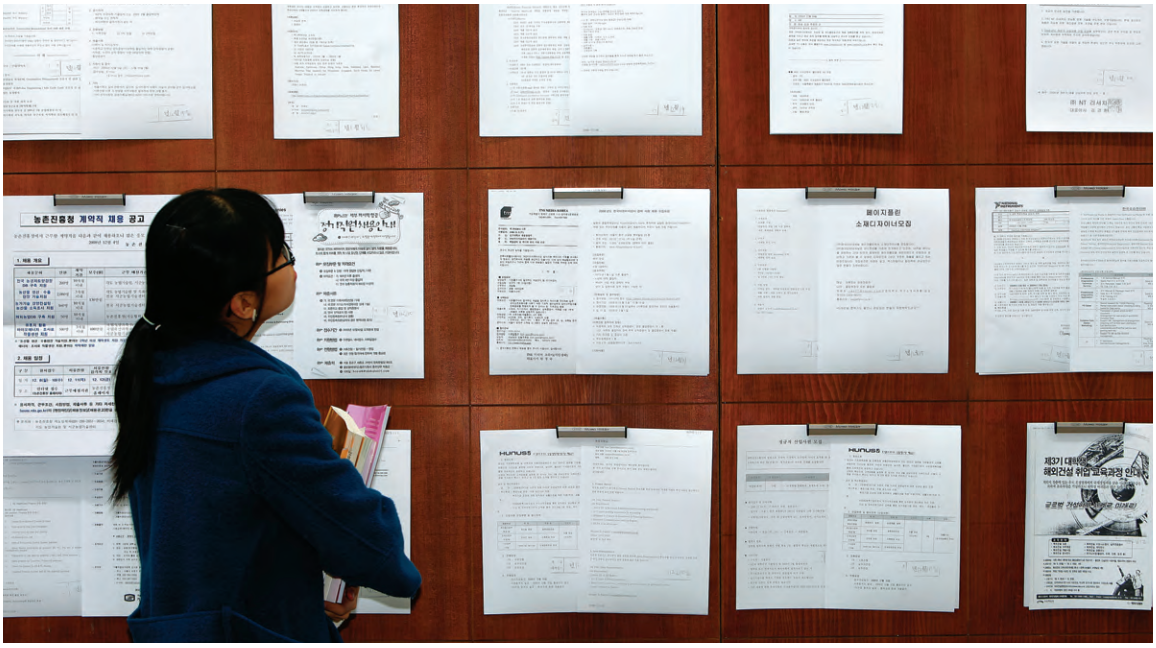
- 33평방미터 미만 소형 떡집 등이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완화
- 참기름, 두부 등 즉석식품류 '자가 품질검사' 항목 개선
- 일반음식점의 노래방 기기 사용(회갑연, 칠순연의 경우 허용)
- 주유소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의무, 1년 이내에서 유예
- 소매점의 재활용 공병수거 취급 수수료 현실화
-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 단축
-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기준 완화
- 공중위생업의 폐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폐지


4대강
살리기
제5화
어!
양평유수지
글 이연수 그림 이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푸드득
대백로 [great egret]
황새목 왜가리과
학명: Egretta alba alba
에그레타 알바 알바
슥
꼬질 꼬질
전 여름이 다가와서 여길 막 떠나려던 참인데, 어떻게 이리 누추한 곳엘 또…
고방오리 [pintail]
기러기목 오리과
학명 : Anas acuta acuta
아나스아쿠타아쿠타
하아
아! 물이 너무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릴. 자네 잘못이 아니잖아.
하기야 이게 모두 인간들이 자꾸 폐수를 흘려보내는 탓이죠. 여길 무슨 하수처리장인줄 아나봐요.
나불 나불
아, 참! 선생님 올 여름 여기서 괜찮으시겠어요? 인간들이 강을 또 파헤치는 모양이던데…
....
설마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 유수지도 시멘트로 확 다 발라버리는 건 아닐까요?
허둥 지둥
너무 걱정 말게. 그건 아닌 것 같아.
?
이번 공사에는 이런 습지 보존에도 힘쓴다는군. 오히려 폐수 유입도 막고 생태계도 복원한다는 거야.
!
그럼 저 올 가을에 또 와도 괜찮을까요?
당근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구인·구직 서비스 오픈

15만 개 기업 일자리 정보 한눈에

15만여 기업이 등록해 매일 20만 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인·구직 코너가 생겼다. 공신력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전망이다.



조영철 기자

조달청 나라장터의 구인·구직 서비스 개통으로 취업 희망자의 구직활동이 한결 쉬워졌다.

조달청이 4월 6일부터 나라장터 홈페이지에도 '구인·구직 코너'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나라장터는 2002년 9월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체 등록, 입찰, 계약과 대금 지급 등 조달 업무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제공한다. 나라장터에 한 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입찰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구인·구직 코너는 구직자가 구직정보를 올리는 '인재정보 시스템'과 구인업체가 채용에 필요한 내용을 올리는 '채용정보 시스템'으로 나뉘어 구직자와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고 있다. 이용자는 '마이 페이지'를 통해 취업 및 채용정보를 관리하면 된다.

구인·구직 코너를 이용하려면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공공 I-PIN으로 가능하며, 회원가입란에서 바로 등록할 수 있다. 공공 I-PIN이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터넷상 개인 식별 번호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회원이 되면 구인·구직 코너에 올라온 채용정보를 직종, 지역, 급여, 학력, 계약형식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바로 지원할 수도 있다.

조달청 신희균 전자조달국장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들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곳"이라며 "등록된 15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구인 신청을 받기 때문에 취업 사기 등으로 구직자를 울리는 악덕업자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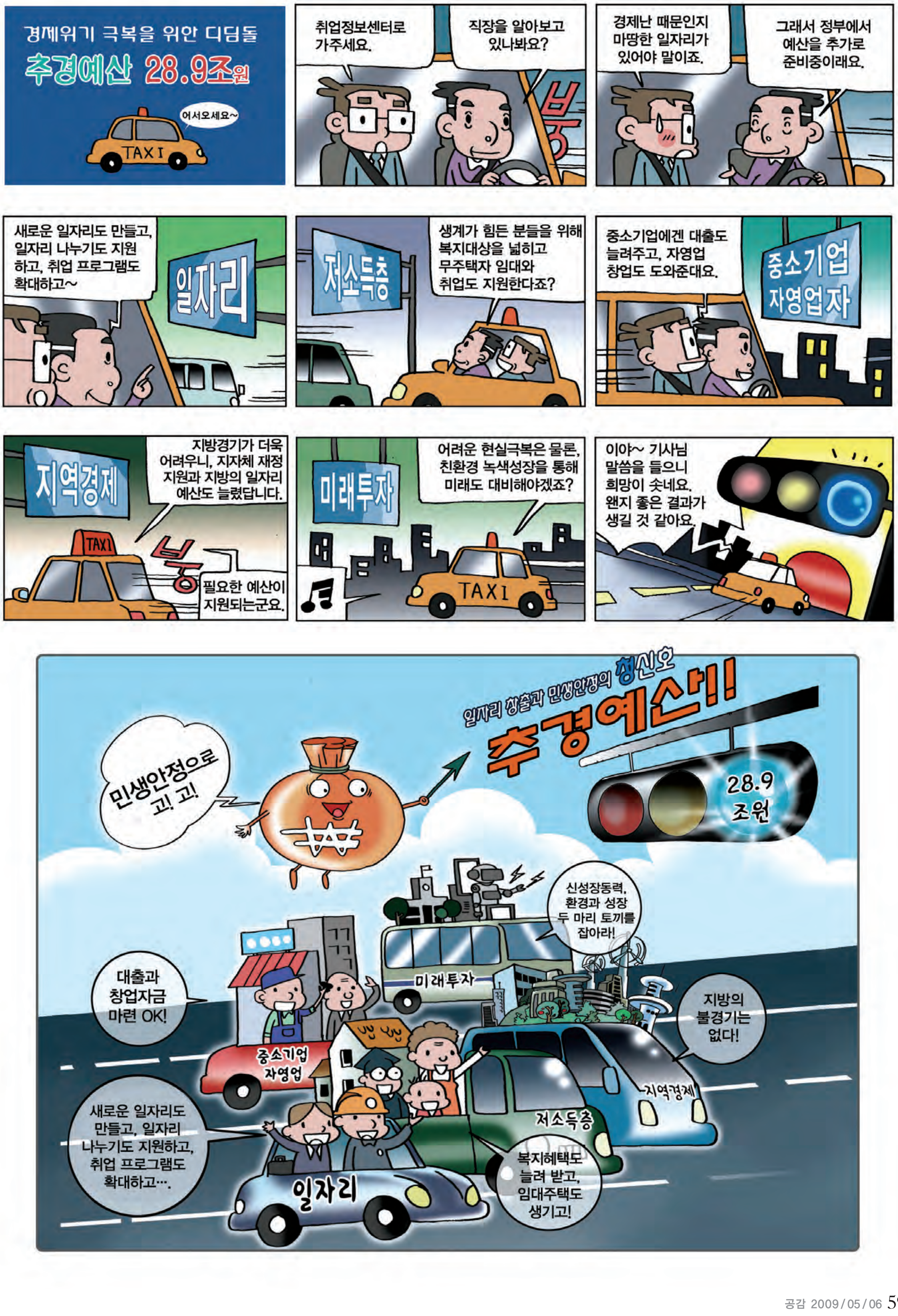
나라장터는 약 3만9천여 공공기관과 15만여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매일 20만 건의 서류가 온라인으로 처리될 만큼 거래 규모가 크다. 지난 한 해 나라장터에서 이뤄진 전자거래 규모는 63조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 국장은 "구직자가 좋은 직장을 구하고, 구인업체도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업체가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를 받을 때, 신규 고용에 기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G

글·정지연 기자

조달청 www.pps.go.kr 나라장터 www.g2b.go.kr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디딤돌
추경예산 28.9조원
어서오세요~
TAXI
취업정보센터로 가주세요.
직장을 알아보고 있나봐요?
부웅
경제난 때문인지 마땅한 일자리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준비중이래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일자리 나누기도 지원하고, 취업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일자리
저소득층
생계가 힘든 분들을 위해 복지대상을 넓히고 무주택자 임대와 취업도 지원한다죠?
중소기업에겐 대출도 늘려주고, 자영업 창업도 도와준대요.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역경제
지방경기가 더욱 어려우니, 지자체 재정 지원과 지방의 일자리 예산도 늘렸답니다.
TAXI
부웅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는군요.
미래투자
어려운 현실극복은 물론, 친환경 녹색성장을 통해 미래도 대비해야겠죠?
TAXI
이야~ 기사님 말씀을 들으니 희망이 솟네요. 왠지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의 청신호
추경예산!!
28.9 조원
민생안정으로 고! 고!
신성장동력, 환경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미래투자
대출과 창업자금 마련 OK!
지방의 불경기는 없다!
중소기업 자영업
지역경제
저소득층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일자리 나누기도 지원하고, 취업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복지혜택도 늘려 받고, 임대주택도 생기고!
일자리

지하철 '도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차량정비팀

"24시간 점검…소리만 들어도 알죠"



시민들의 믿음직한 발인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 차량정비팀은 24시간 정비를 한다.

며칠간 오락가락하던 빗방울이 말끔히 가신 4월 말. 지하철 7호선 장암역과 잇닿은 도봉차량기지 한쪽에 전동차 8대가 늘어서 있다.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위풍당당한 차량에 감탄하다보면 그 사이를 쉴 새 없이 누비는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은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손길 없이는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 목적지까지 승객을 안전하게 모셔다주는 전동차의 편리함을 누리기 힘들다. 이들은 전동차를 굴리는 마이더스의 손, 서울도시철도공사 도봉기지 차량정비팀원들이다.

1994년 설립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지하철 5, 6, 7, 8호선의 운영을 맡는 기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이 4개 선에는 모두 6군데의 차량기지가 있다. 5호선의 방화와 고덕, 6호선의 신내, 7호선의 도봉과 천왕, 8호선의 모란이 그곳이다. 승객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이곳에는 어디나 차량정비팀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전철을 더욱 믿음직스럽고 안전한 시민의 발로 만들려는 이들의 숨은 노력은 추위와 더위,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3조 2교대… 위험 높아도 보람 느껴

"전철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하나잖아요. 잔 고장이나 지연 없이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려면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입니다. 운행점검은 전철이 운행을 마친 새벽에도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정비인력들이 3조 2교대로 24시간 차량 곁에 붙어 있어야 해요."

도봉차량기지에서 10년 이상 전동차들과 씨름해온 김종기 검사기술파트 과장(41)은 초창기 '야근의 추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쓴웃음이 난다. "지금은 히터도 있고 냉방기도 있지만 처음엔 부대시설들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어요. 새벽녘엔 이곳 온도가 영하 10~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겨울철 새벽녘에 칼바람을 맞으며 그날 나갈 40여 대의 차량

을 점검하기 위해 운행점검과 출고점검을 하다보면 동태가 되기 일쑤였죠. 그런데 몸은 얼어도 정신만은 말짱했어요. 차량에서 문제가 발견될수록 더 탐구심이 불타올랐죠.”

차량 정비가 이뤄지는 검사구역 안에는 1천 5백와트의 직류 전류가 흐르는 전차선을 비롯, 위험물 투성이다. 안전교육이 끊임없이 이뤄지는데도 크고 작은 사고가 적잖이 발생한다. 이렇게 편치 않은 작업조건, 낮지 않은 위험도인데도 이를 감당하게 하고 오히려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이런 솟구치는 탐구심과 엔지니어로서의 승부욕이다.

정비팀은 일상적인 운행점검 외에도 닷새에 한 번씩 하는 5D(day) 점검, 넉 달에 한 번씩 하는 4M(month) 검사, 4년마다 전동차를 종합 진단하는 4Y(year) 검사 등으로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하는 셈이다. 기관실 컴퓨터가 고장 부위를 알려주긴 하지만 구체적인 전동차 이상 원인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뜯어봐야 알 수 있다.

안전운행은 물론 고객만족까지

“전동차도 생명체와 같아요. 계속 운행하다보면 노후화되고 그러다보면 삐걱거리게 되거든요.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이나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이걸 예방하려면 보고 또 보는 꾸준한 점검과 정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보고 또 봐도 고장이나 불량 발생을 1백퍼센트 막을 수는 없다. 가장 난감한 때는 선로를 주행하던 차가 일순 멈춰버리거나 운행이 지연되는 때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전철의 특징이자 매력이란 뭐니 뭐니 해도 정시운행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럴 때는 고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기계발에 더욱 채찍질을 하게 된다.

“우리 정비팀의 존재 이유가 고객의 편안한 전철 이용이잖아요. 나아가 도시철도공사 자체의 존재 이유도 그렇고요. 이 점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비팀 사람들은 쉬는 날 전철을 타도 그냥 타는 법이 없어요. 뭐 문제 있는 곳이 없나 주변기기나 실내기기를 두리번거리고, 고객이 편안하게 느끼는지도 늘 살펴보게 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점검한 차량이니 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눈높이가 높아져감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초점도 초창기 ‘안전운전’에서 갈수록 ‘고객만족’으로 맞춰져 가고 있다. 정비를 비롯해 차량 내 청소와 기기 관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데도 차량에 토사물이 있다, 형광등이 어둡다는 등의 고객 민원이 한 달에도 몇 건씩 날아든다. 그럴 때마다 높아진 시민의식을 깨닫고 더욱 분



전동차를 내 몸처럼 여기고 점검하는 지하철차량정비팀.

발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전철이 세태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때도 있다. “심야차량의 경우 종점에서 모두 내리시라고 수차례 방송해도 술을 과하게 마신 승객이 차량기지까지 그대로 실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땐 의정부의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집까지 모셔다드리라고 하죠. 경제가 어렵기 때문일까요, 요즘 이런 분들이 부쩍 는 것 같아요.”

“정비팀 사람들은 쉬는 날 전철을 타도 늘 살펴보게 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점검한 차량이니 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타까운 이들이 늘어날수록 더 쾌적하고 안전하며 제 시간에 맞춰 다니는 차량으로 가꾸는 것이 아픈 속을 풀어주는 자신들의 몫이라고 정비팀은 믿는다. 지하철은 서민의 발이기 때문이다.

전동차로 맺어진 정비팀 사람들의 관계는 가족보다 끈끈하다. 함께 야근하며 산전수전 다 겪으며 가족보다 더 긴 시간을 함께하고 있으니 당연하다. 전동차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어떻게 탈이 났는지 대충 짚어낼 수 있다는 ‘차량 도사’들. 전동차의 월간 고장률이 줄어들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그들. 정비팀 사람들의 바람은 소박하면서도 한결같다. 자신들이 정비한 전동차로 고객 불편이 조금 더 덜어지고 행복은 조금 더 보태지는 것이다. G

글 · 손정숙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리콜 발표 전에 수리해도 '보상 콜'

자가 운전자들이 약 올라 하는 일 중 하나는 말썽 부리는 자동차를 돈 들여 고쳐놨더니 자동차회사에서 뒤늦게 리콜 소식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젠 '뒤늦은 리콜' 때문에 운전자들이 차 고치고 속 쓰릴 일은 줄게 됐다.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자발적인 결함 시정)을 발표하면 자동차 소유주는 리콜 발표 이전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의 소유주들은 결함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의 리콜 해당 부분을 자비(自費)로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단, 법 시행일인 3월 29일 이후 수리한 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연합

자동차 리콜제도가 개선되어 자비로 차를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20일 리콜을 발표한 현대자동차의 5개 차종과 기아자동차의 5개 차종 소유주가 지난 3월 29일 이후 해당 결함 부분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해당 자동차의 직영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은 2006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에 생산되어 판매된 현대자동차의 신형싼타페, 베라크루즈, 신형아반떼, 신형쏘나타, 신형그랜저와 기아자동차의 그랜드카니발, 신형카니발, 신형스포티지, 뉴카렌스, 쏘렌토 등이다. 이번 리콜 사유는 해당 모델의 일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스위치 접촉불량으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일이 발생해서다.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 지급

리콜 대상 자동차의 소유주는 4월 21일부터 현대·기아 직영 서비스센터 또는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제동등 스위치를 교체할 수 있다.

리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은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비를 대행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주가 실제 지출한 수리비용 중 적은 금액이다.

자동차 소유주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제작 결함 시정기간 내에 자동차관리법령이 규정하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갖춰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를 받은 업체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김용원 사무관은 "지난 3월 29일 이후 수리비에 보상을 한정한 것은 자동차 제조사 등에 비용 부담을 지우는 데다 법 시행 이전 수리비용까지 보상하는 것은 법의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 : 현대자동차 고객센터(080-600-6000),
기아자동차 고객센터(080-200-2000).

미샤 마이스키가 연주하는 '청산에 살리라'

외국 유명 음악인의 목소리와 연주 담은 한국 가곡 음반 제작

한국의 음악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해외문화홍보원이 '한국 가곡' 음반을 만들었다. '꽃, The best of Korean songs' 라는 타이틀을 단 한국 가곡 앨범에는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와 볼쇼이 합창단이 한국어로 부른 한국 가곡 6곡과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 2곡이 수록돼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접할 수 있도록 한국 가곡 작품집을 한글가사 원문을 실은 외국어판으로 마련했다"고 밝히고, "음악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세계인들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 가곡 CD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가곡 CD에는 '청산에 살리라' '진달래꽃' '편지' '그리운 금강산' 등 우리나라 대표 가곡들이 담겼다.

세계 유명 음악인과 합창단이 노래와 연주를 맡은 이번 CD는 앞으로 한국의 음악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이웃들과 소통하는 데 두루 활용된다.

외국인이 연주한 한국 가곡 음반은 고유 언어로서의 한글을 알리고, 한국어가 매력 있는 음악언어라는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앨범은 한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글 가사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배치하고 영어, 일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다국어로 배경 설명을 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 가곡 음반을 외빈 방문, 대통령 순방 및 문화교류 행사 등에 활용하고 각국 음악교육기관, 합창단 등 유관단체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속작업으로 한국 가곡 악보를 다국어로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음악을 통한 문화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앨범 제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표지의 제자(題字)는 서예가 강병인 씨가 음악선율의 아름다움을 '꽃'이라는 글자로 형상화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이 음반에 수록된 곡을 정부 영문 홈페이지(korea.net)에서 들을 수 있도록 했다. G

글 · 구자홍 기자

문의 : 해외문화홍보원 홍보콘텐츠지원과 02-398-1912



'그리운 금강산'을 연주한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한국 가곡 CD 수록곡
임이 오시는지 (김규환 작곡, 박문호 작사)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독창
눈 (김효근 작사 · 작곡)
바바라 보니 독창
청산에 살리라 (김연준 작사 · 작곡)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연주
진달래꽃 (김동진 작곡, 김소월 작시)
바바라 보니 독창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김동진 작곡, 김용호 작시)
바바라 보니 독창
편지 (윤이상 작곡, 김상옥 작시)
바바라 보니 독창
그리운 금강산 (최영섭 작곡, 한상억 작시)
미샤 마이스키 연주 및 러시아 볼쇼이 합창단

신록의 5월 더 위대한 베토벤

예술의전당, 매달 한 번씩 해설이 있는 공연

청소년음악회 '위대한 베토벤'



2009년을 맞이해 더욱 새로워진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가 지휘자 성기선과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해설을 통해 한층 쉽고 유익한 클래식의 세계를 선보인다. 청소년음악회의 올해 주제는 '위대한 베토벤'.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음악세계는 물론, 그가 보여준 음악적 영감과 열정을 느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예술의전당은 1990년부터 해마다 '금난새와 함께 떠나는 세계 음악여행', '김대진의 음악교실' 등의 제목으로 청소년음악회를 열고 있다. 덕분에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는 클래식 연주를 듣고, 음악과 작곡가에 얽힌 이야기 등을 쉬운 해설로 들을 수 있는 대중적인 음악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교향곡 등을 연주하고, 지휘자 성기선 씨와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가 함께 나와 작품세계와 음악적 요소들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공연 담당자인 예술의전당 김혜연 씨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로 친숙해진 베토벤의 음악세계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음악회는 5월 16일을 시작으로 매달 토요일(6월20일, 7월18일, 9월12일, 10월17일, 11월28일) 오후 5시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일시 5월 16일(토)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어른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문의** 02-580-1300 www.sac.or.kr

생활의 발견 가족愛 '집으로 가는 길'

일시 5월 8일(금) 오후 7시 30분~8시 50분
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관람료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의 010-6272-1624 www.ncktpa.go.kr



3대(代)로 구성된 가족예술단 '예(藝)그리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예그리나는 공연에서 가족 해체로 빚어지는 사회문제와 해법을 서예를 통한 퍼포먼스와 모노드라마, 전통무용, 노래, 음악 등으로 표현하며 우리 문화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1부에서는 서예가 이상봉의 '용비학무(龍飛鶴舞)'라는 붓글씨가, 2부에서는 그의 딸 이현선의 궁중무용 '춘앵전'이 백미로 꼽힌다. 3부에서는 가족 3대가 사돈가족과 함께 각기 다른 삶의 애환을 노래로 이야기한다.

어린이를 위한 상설 전시 '거울아, 거울아'

일시 11월 30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2층
관람료 무료
문의 02-2188-6130(화~일), 6019(월) www.moca.go.kr



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1월까지 열리는 상설 전시회.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동화의 한 구절을 따서 이름 붙인 이번 전시는 미술의 가장 오래된 주제인 '인물'이 테마다. 어린이들의 연령대와 감성을 고려해 3~6세, 7~10세, 11~13세를 위한 공간과 작품으로 구성했다.

김호석, 김선두, 권기수, 박형진, 윤석남, 안윤모 등 24명의 작가가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미디어 작품 70여 점을 선보인다.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예술의 다양성과 미술의 조형원리를 익히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다. G

글 · 김지영 기자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구비서류 없는 민원처리

e 하나로민원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e하나로민원 홍보대사
가수 박 현 빈

국민들이 인 · 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71종)

주민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특허** :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법무** :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복지/보훈**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자동차/선박** :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운전면허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세금** :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분/주택분/토지분), 소득금액증명,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 :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3호), 석유판매업등록증,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어업면허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허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임야대장, 임야도,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외교**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병무** : 병적증명서 **상훈** : 상훈수여증명서 **노동** :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분에 한함)

※ 단,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민원인이 사전에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국민연금공단 등 50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http://pr.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A(H1N1)
바로 알면, 예방도 거뜬!

멕시코, 미국 등 북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인플루엔자A(H1N1)는
사람간 감염이 확인되어 전 세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구성하고
WHO와 긴밀한 연계 속에 확산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위생관리로 예방할 때!

바로 알고, 위생 &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 – 두렵지 않습니다

철저한 관리는 최고의 예방책!



질병의 70%가 전염된다는 손!

손만 자주 씻어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요!



특히, 기침과 재채기로 감염 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A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수건이나,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다음의 경우-가까운 보건소나 복지부 129콜센타에 신고해주세요!

최근 멕시코나 미국을 방문한 후, 콧물, 코막힘, 목아픔, 기침, 발열 중
2가지 이상의 증세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